



## 40세까지 간 은행 희망퇴직...수억 퇴직금은 '옛말'

‘역성장 공포’에 KB국민·신한·우리銀 등 희망퇴직 실시  
KB국민은행 특별 퇴직금 최대 39개월서 4개월치 축소  
농협銀 8개월치 줄여...하나銀 40세이상 6개월치 감소

올해 은행권의 순이익이 5년 만에 역성장할 것이라 전망과 함께 비용절감과 직결되는 ‘희망퇴직’에 변화가 시작됐다. 과거 은행원들에게 희망퇴직은 기본 퇴직금에 특별퇴직금까지 추가로 챙길 수 있어 인생 2막을 시작하기에 좋은 선택지로 꼽혔다. 하지만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은행들이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특별퇴직금을 대거 축소하는 등 희망퇴직에 변화가 일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은행권 희망 퇴직자에 대해 특별퇴직금 규모가 전년보다 최대 8개월치(22%)나 줄었다. 임금피크제 대상인 1964~1967년생을 포함해 근속연수 15년에서 10년 이상,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까지로 확대됐다. ▶관련기사 5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시절 은행권은 비대면채널 확대와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희망퇴직 방식의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세대

특별퇴직금 감소 (퇴직금 최대 보상 기준)  
※출처: 각사

	2019년	2020년
KB국민은행	39개월치	35개월치
농협은행	36개월치	28개월치
하나은행	36개월치	31개월치
우리은행	36개월치	30개월치
신한은행	36개월치	36개월치

간 박탈’을 본격화했다. 중간관리자급이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퇴직금과 별도로 대규모 특별퇴직금을 추가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예년처럼 퇴직금을 쏟아 부을 수 없는 실정이다.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대출 상품 판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전반에선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분석돼 5년 만에 역성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만 40세 이상 직원과 1963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해 총 356명이 은행을 떠났다. 1963년생 퇴직자에게는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8개월치가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됐다. 36개월치를 줬던 전년도에 비하면 8개월치나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임금피크·준정년 특별퇴직을 정례화한 하나은행도 총 369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임금피크 특별퇴직 대상자인 1964~1965년생에게는 각각 월평균 임금의 22·31개월치를 특별퇴직금

으로 지급했다. 전년도 31~36개월치에 비하면 최대 5개월치가 줄었다.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인 준정년 특별퇴직금도 최대 33개월치에서 최대 27개월치로 6개월치나 줄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1964~1965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 결과 300여 명이 신청했다. 심사를 거쳐 이달 31일 퇴직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이달 3일까지 희망자를 접수했다. 직위·나이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23~35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최대 39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던 전년도에 비하면 4개월치가 줄어들었다. 김범근 기자 nova@



삼성전자 부스 ‘인산인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 개막일인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삼성전자 부스가 각국에서 온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사장〉

### 김현석 “삼성봇 첫 제품 6~7월 출시”

하만과 개발 세계 첫 ‘5G 차량용 통신장비’ 내년 양산



삼성전자가 지난해 처음 공개한 삼성봇 시리즈의 첫 제품을 6~7월께 출시한다. 자회사 하만과 공동 개발한 5G TCU(차량용 통신장비)는 2021년에 양산되는 BMW의 전기차 ‘아이넥스트(iNEXT)’에 탑재된다. ▶관련기사 4·10·14면

로봇, 인공지능(AI), 전자, 5G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 김현석 삼성전자 CE부문장(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삼성봇 시리즈 출시 일정을 공개했다.

김 사장은 앞서 지난해 CES에서 ‘로봇 연대(2019년) 출시’를 공언했으나 올해 CES까지도 상용화된 제품은 없었다.

김 사장은 “가격 문제로 지난해 출시하지 못했는데, 소비자들이 수용할 만한 가

격대를 찾았다”며 “큰 사이즈의 건조기 가격 안에 들어가게끔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16kg 삼성 건조기 그랑데 가격은 210만 원이다.

이날 삼성전자 전시관에선 5G 기반의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 2020’과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적용한 TCU기술 등 전자 사업도 공개됐다.

특히 삼성전자의 5G 기술을 활용한 TCU가 BMW 전기차에 장착된다는 발표가 관심을 끌었다.

삼성전자 전자사업팀장 박종환 부사장은 “5G TCU 공급은 삼성전자의 5G 기술이 자동차에 적용되는 첫 사례”라며 “서울 시버스와 택시에 5G TCU를 탑재한 실증 사업을 SK텔레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이어 “TCU 분야에선 하만이 잘하지 못했는데, 5G를 계기로 3~4년 후에는 독보적 1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BMW에 이어 계속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송영록 기자 syr@

## 이란, 美 보복 공격...글로벌 금융시장 ‘요동’

이라크 美기지 2곳 미사일 공격  
美 “모든 조치 취할 준비돼 있다”  
애플 1% 이상 급락...유가 급등



“알아사드 기지에는 13발의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또 에르빌에서는 총 두 발의 미사일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공격 지역을 치밀하게 선정했다. 알아사드 기지는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벌였을 때 현지에서 두 번째로 큰 기지였고, 2014~2017년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 당시 핵심 군사기지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2018년 이 기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쿠르드 자치구 내에 있는 에르빌 기지 역시 IS와의

전쟁에서 핵심 군사 허브였으며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가 주둔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만일 미국이 이번 공격에 보복한다면 미국 본토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이스라엘 하이파를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긴급 안보회의를 마치고 올린 트위터 트윗에서 “우리는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단연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잘 갖춰진 군을 보유하고 있다”며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보복 작전으로 중동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CNN은 이번 공격이 트럼프에 대한 이란의 ‘직접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글로벌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쳤다. 아시아증시가 8일 일제히 1% 이상 하락하고 국제유가(WTI)는 배럴당 65달러 중반대까지 치솟아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7兆 ‘선방’

작년 잠정 영업이익 27.7조로 반토막  
LG전자, 스마트폰 부진...986억 그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해 4분기 다른 성적표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거뒀다. 반면 LG전자는 스마트폰 적자 폭 확대로 1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10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59조 원, 영업이익 7조1000억 원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동기과 비교했을 때 각각 0.46%, 34.26% 감소한 수치다. 다만 당초 우려와 달리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6조5000억 원)를 훨씬 웃돌았다. 지난해 총 매출액은 229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85% 감소했고 영업이익 역시 27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2.9% 급감했다. 삼성전자가 4분기에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실적을 거둔 것은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서버와 모바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이날 삼성전자와 달리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거뒀다. LG전자는 같은 날 지난해 4분기 매출 16조610억 원, 영업이익 986억 원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62조3060억 원으로 2017년의 역대 최고 기록(61조3963억 원)을 2년 만에 경신했지만 영업이익은 2조4329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8년(2조7033억 원)보다 10% 감소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이란 “美 보복 시나리오 13개… 한 번으로 안 끝나”

## ‘對美 공격’ 다음 타깃은

“이라크 내 모든 미군기지 감시 중 美 반격 도와도 우리 표적 될 것” 육·해·공 위협하며 병력 철수 경고

이란이 이라크 내에 있는 핵심 미군 기지 두 곳을 기습 공격하면서 두 나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란의 향후 대미 보복 시나리오에 세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란 정부는 7일(현지시간) 미군이 이란 군부 최고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데 대한 보복과 관련해 13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7일 열린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에서 “살해된 형제의 보복은 한 가지 작전으로 끝나지 않는다”면서 “미국에 보복하는 시나리오 13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약한 수단으로도 미국인들에게 역사적 악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샴커니는 또 “이라크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를 감시하고 있고, 장비 등 병력 수준을 다 파악했다”면서 “미국이 중동에서 즉시 나가지 않으면 그들의 시체가 중동을 뒤덮게 될 것이다”라고 위협했다.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샴커니와 이란 혁명수비대의 발언을 고려하면 미국 본토·우방국·해상·영



공 등 전방위에 걸친 공격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란 혁명수비대는 8일 이라크 내 미군 공군 기지 공격 이후 낸 성명에서 미국의 우방국을 겨냥했다. 이들은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는 미 우방국의 영토는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 “만약 아랍에미리트(UAE)가 미군의 공격에 가담하면 UAE는 경제와 관광 산업에 작별을 고해야 하며, 두바이가 우리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하이파를 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원하는 무장정파인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 공격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동 이외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기지가 있는 제3국도 우리 미사일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예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도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반격에 나서면 우리는 미국 내에서 대응한다”고 경고했다. 또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해협을 항행하는 선박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 이란은 미국 및 서방국가와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 나포 및 공격을 감행해왔다.

하늘길도 안심할 수 없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란이 미군 기지 2곳을 공격하자마자 “전 세계 미국 민간항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미 항공기 조종사와 항공사들에 이란과 이라크, 오만만(灣)과 페르시아만 영해 상공 운항 금지령을 내렸다.

또 이란이 최고의 해킹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 테러를 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 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보복을 절차적으로 정당화하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이란 의회는 이날 미군 전체와 미 국방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란의 미국 공격은 이란을 위협하는 테러조직에 대응한 ‘대테러 작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어서다.

김서영 기자 0jung2@



도널드 트럼프(맨 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018년 12월 26일(현지시간)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알아사드/AP뉴시스

## 첫 공격지 알고보니… 미군 병력·물자 요충지

트럼프·펜스 방문했던 기지… ‘美 아들·딸’ 공격 상징적 의미 커

### ‘알아사드 공군기지’ 공격 왜

이란은 8일(현지시간) 새벽 이라크 내 핵심 미군 기지 두 곳을 선별 공격함으로써 군부 실세 살해에 대한 보복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첫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이라크 아인알아사드 공군기지(이하 알아사드 기지)와 에르빌 기지는 미국 입장에선 남다른 곳이어서 주목된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은 7일 열린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장례식에서 “우리는 미국이 가장 아끼는 곳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천명했고, 8일 새벽 알아사드 기지와 한국 자이툰 부대가 주둔했던 에르빌 지역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 기지의 존재가 미국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란이 인식한 것이다.

CNN에 따르면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가한 알아사드 기지는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 히트시와 하디타 지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기지는 미군에 역사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03년 미국과 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 내에서 미군이 주둔한 기지 중 두 번째로 컸으며, 지금까지 미군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핵심 군사 허브 역할을 해왔다.

또 알아사드 기지는 대통령 등 핵심 인사들이 자주 방문해 장병들을 치하하는 등 미국 정부가 각별히 공들인 곳이기도 하다. 이란으로서는 ‘구국의 영웅’이었던 솔레이마니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아들·딸’ 들을 공격했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주기에 최적의 거점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2018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알아사드 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11월 23일에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부인 카렌 여사가 알아사드 기지를 방문했다.

알아사드는 또 에르빌과 함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와의 전투를 수행하는 전진기지이기도 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어서 이전에도 IS와 이란, 그리고 이란 지원을 받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등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됐다. 지난해 12월 3일 알아사드 기지에 로켓포 포탄 5발이 떨어졌고, 솔레이마니가 살해된 이날 3일에도 알아사드 기지가 공격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에르빌은 이라크의 다른 지역에 비해 미국인에게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미국에 이번 공격이 주는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중동사태로 시장 변동성 확대 필요시 금융·외환 안정화 조치”

### 韓 정부 긴급회의 소집

미국·이란 간 갈등 격화에 정부도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8일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조치 이후 유가·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일제히 회의를 소집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한은은 통화금융대책반 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로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면서도 “관련 이슈가 수시로 부각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금융시장국과 국제국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필요하면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장중 2150을 밑돌고, 미국·일본 등 해외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반면 국제유가, 안전자산인 금과 미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비공개 관계부처 합동대응반 회의를 열

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유사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정승일 차관 주재로 석유·가스 수급과 관련해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과 정유사, 석유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석유 수급 상황실 외에 대한석유협회에 중동 위기 대책반을 추가 개설키로 했다. 석유공사는 석유 수급 상황 악화 시 비축유를 즉시 방출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민간 정유사는 대체도입 물량 확보 등 비상시 세부 대응계획을 준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이 국내 소비자 가격 반영에 통상 2주기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불안 심리 등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부당 인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에 항공·해운·정유·건설 ‘초긴장’

### 산업계 깊은 우려

이란이 8일(현지시간)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며 양국의 전운(戰雲)이 짙어지자,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전 산업계에 퍼지고 있다.

세계 원유 공급량 중 40%에 달하는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이 닫히면 단순히 국제유가 등락을 넘어 수급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비용 중 유류비 비중이 상당한 항공·해운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항공사 경영에서 유류비가 전체 영업 비용 중 차지하는 비중은 25~30%에 달한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유류 소비량이 3300만 배럴 수준이다.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370억~38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유가가 60달러대였던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유류비가 전체 비용 중 약 30%를 차지하는 해운업계에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에 따른 운임 부담으로 최근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 시작한 국내 해운업계에 유가 상승은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정유업계 역시 중동발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석유 수급에 아직까지 문제가 없으나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거나 중동 내 미군 우방국의 석유시설을 공격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유가 급등이 장기화된다면 석유제품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미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요 침체로 불황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장기화로 유가가 빠르게 오른다면 제품 원가마저 오르면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중동 지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건설업체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 사업장 철수까지 고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 악화 시 즉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이란 지역에서 건설 공사를 벌이고 있는 국내 건설사는 없다. 그러나 이라크 등 인근 지역에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다수의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문선영 기자 moon@

# “美, 중동에 B-52 폭격기 급파”... 전면전 치달나

## 국제사회 뿔친 ‘전쟁 공포’

“이란 공습용 인도양에 6대 배치 지상 병력도 3500명 추가 투입”

‘드론·사이버전’ 전력 키운 이란 군사력 1위 美도 알볼 상대 아나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실행에 옮기면서 양국이 군사적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전조되고 있다. CNN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8일(현지시간) 새벽 미군과 연합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내 기지 2곳에 최소 12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공격은 미군의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인 ‘쿠드스군’의 거점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에 대한 첫 번째 보복이다. 이란은 3일 솔레이마니가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이후 ‘가혹한 보복’을 예고해왔는데,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지 5일 만에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반격에 나설지 여부는 미국 측의 피해 규모와 미국인 사상자 여부에 달렸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이 중동에서 공격을 일으킬 때마다 미국인 사망자가 없으면 보복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란이 미군 기지를 정조준해 공격했다고 밝힌 데다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 8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제 사회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긴박하게 움직였다. 백악관은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최대한 자제했다. 당장 강공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일단 하룻밤을 보낸 뒤 상황을 정리해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있을 시 대대적인 보복을 경고,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과 5일 이란이 미국인이나 미국의 자산을 공격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은 이란의 52곳을 공격 목표 지점으로 정해냈다”,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하겠다”는 등 이란이 보복할 시에는 더 큰 응징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미국은 그간 이란의 보복에 대비해 중동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해 왔다. 전날 미 CNN방송은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 미국 방부가 B-52 폭격기 6대를 인도양 내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폭격기는 지시가 떨어지면 대(對)이란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

추가 병력도 속속 투입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이 8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은 중동 방어력 강화를 위해 82공수사단 소속 병력 3500명의 추가 배치 작업에 돌입했다. 이후에도 미 육군 레인저를 포함한 특수전 부대 병력 투입과 바탄 상륙준비단(ARG) 배치 계획 등의 보도가 쏟아졌다.

이런 미국의 긴박한 움직임에 이란도 강대 강으로 맞서고 있다. 알리 삼커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가장 악한 경우라도 ‘미국인에게 잊지 못할 역사적인 악몽’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실제로 이란의 군사력은 잡아먹힐 수준은 아니다.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의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이란은 14위를 차지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드론이나 사이버전에 이르기까지 이란은 꾸준히 전력을 강화해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란의 병력은 총 52만3000명 정도다. 무기 분야에서는 주축인 미사일 능력이 중동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해 11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정보국(DIA)의 ‘이란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많고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로 평가됐다. 이란은 현재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 이 밖에 드론 능력, 사이버전 등 비대칭 전력도 꾸준히 개발해오면서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왔다. 변효선 기자 hsbyun@

### 미국·이란 갈등 주요 일지

2019년 5월	호르무즈해협서 상선 4척 파습
	이란, 오만해서 미군 무인기 격추
6월	트럼프,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및 측근 경제 제재 단행
	미국, F-22 전투기 편대 카타르에 첫 배치
	로하니 이란 대통령, 우라늄 농축도 상한(3.67%) 파기 선언
7월	이란, 영국 등 외국 유조선 억류, 사우디 핵심 석유시설 파괴
9월	이라크 미군 기지, 로켓포 공격 받아 1명 사망
12월	미국, 이라크 무장조직 군사시설 폭격, 25명 사망
2020년 1월 1일	시아파 민병대의 추종세력,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급습
3일	미국, 이란 군부 거물 솔레이마니 소장 살해
5일	이란, 핵합의 제한 거부하고 원하는 만큼 농축하겠다고 선언
	사실상 핵합의 탈퇴
8일	이란,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 2곳에 탄도 미사일 발사

이란 혁명수비대가 8일(현지시간) 새벽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의 우방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사진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인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 연합뉴스

## 유가·금값 급등... 증시는 ‘패닉’

닛케이 1.6%·상하이 1.2%·코스피 1.1% 줄하락... 금값 7년 만에 1600달러 돌파

### 글로벌 금융시장 반음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군과 연합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내 기지 2곳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는 소식이 8일(현지시간) 아시아증시가 급락하고 국제유가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 하락한 2만3204.76으로 마감했다. 닛케이지수는 장중 낙폭이 한때 600포인트를 넘어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처음으로 2만3000선을 밑돌기도 했다.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는 1.1% 하락으로 장을 마쳤다. 중국 증시 상하이종합지수와 홍콩증시 항셱지수도 1%대 하락세를 보였다.

뉴욕증시 3대 지수 선물도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지수 선물은 한때 400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며 S&P500지수 선물은 최대 1.7% 떨어졌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미국 서부 텍사

### 국제 금값 추이



### 국제유가 추이



스산 중질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한때 4.5% 급등한 배럴당 65.65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브렌트유도 한때 4% 이상 뛰면서 배럴당 71달러를 돌파했다.

금값은 2013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온스당 1600달러 선을 넘었다.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10bp(bp=0.01%포인트) 하락했다. 국제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안전 자산의 대명사인 일본 엔화 가치는 급등락 상황이 전개됐다. 달러·엔 환율이 도쿄외환시장에서 장 초반 107.65엔으로 하락(엔화 가치 상승)하면서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그러나 후속 보도 이후 상황이 추가로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전개되면서 전날과 비슷한 108엔 선에서 움직였다.

다만, 여전히 이란의 미군 주둔 이라크 기지 공격으로 양국이 전면적으로 충돌할 위험이 커지면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인 금과 일본 엔화, 미국 국제 등으로 이동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TD증권의 미틀 코테차 투자전략가는 “시장이 지금의 불안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은 미국의 반응과 긴장의 추가 고조에 달렸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마음과 마음을 잇는다.

주는 즐거움 받는 기쁨 - 금강상품권

BAG - E9S9J61FE7 / E9S9J64FE4 / E9P5J62FE7 / H9BJ550FE3 / H9CJ552FE2  
SHOES - WWB1951KR85 / WWB5405KR37 / WWB1959KR32 / WWB8773KR17 / WWB8772GS28

주는 즐거움 받는 기쁨  
**금강상품권**

NCSI 남성 정장구두 부문 (16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1 구두·캐주얼화 부문 (21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www.kumkang.com  
고객문의 1577-4884

# “볼리 ● 상호작용하는 디바이스... 새로운 경험 제공”

“상용화 시기 고민중... 노약자·어린이 케어 등 다양한 기능할 것”  
‘프로젝트 프리즘’ 차기작 세탁기·건조기... 이르면 이달말 공개

## 김현석 사장 기자간담회

삼성전자가 이르면 6월께 삼성봇 첫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6일(이하 현지시간) CES 2020 기조연설에서 공개한 지능형 동반자 로봇 ‘볼리’ 상용화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CE부문장) 사장은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IT업계의 큰 관심을 받은 볼리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다.

김 사장은 “볼리가 사람을 따라오는 시연을 한 건 비전센서를 통한 볼리의 움직임을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였다”며 “볼리는 다른 기기와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인터랙션 디바이스’라고 말했다. 또 김 사장은 “볼리처럼 각 기기를 인터랙션하는 디바이스가 있다면 식기세척기나 청소기가 로봇이 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볼리의 상용화 방법 및 시기, 가격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볼리의 미래는 다양한 ‘케어(care)’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적비전센서를 이용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살피고, 후속 조치를 하는 식이다.

볼리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볼리가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며 영상을 남긴다면 개인 정보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비전과 사업 방향 등을 밝혔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있지만, 집 안에 서버를 두고 모든 데이터를 안에서 처리하고 보관하는 엣지컴퓨팅 시대가 온다면 문제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공개한 삼성봇 시리즈의 출

시 일정도 공개했다. 김 사장은 “가격 문제로 지난해 출시하지 못했다”며 “현재 소비자 분들이 수용할 만한 가격대를 찾았고, 6-7월께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로봇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아마 프로젝트 프리즘의 3, 4번째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프리즘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가 발표한 가전 사업의 새로운 비전이다. 프리즘에 투영된 빛이 갖가지 색상으로 변하듯, 고객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을 만든다는 의미다. 프로젝트 프리즘의 첫번째 제품은 ‘비스포크’였다. 김 사장은 “프로젝트 프리즘의 두 번째 제품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공개된다”며 “세탁기나 건조기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T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인공인간’ 프로젝트인 네온(NEON)에 대해서는

“네온은 운영의 독립성을 가진 사내 벤처 성격의 스타랩스(star labs)에서 수행하고 있는 독자적인 프로젝트”라며 “나중에 네온이 잘 성장한다면 그쪽에서 사업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카이저 퍼머넌트와의 협업으로 개발된 심장 질환 재활 프로그램 ‘하트와이즈(HeartWise)’의 사업확대에 대한 질문에는 김 사장은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의료비는 바빠다”며 “질병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 관련) 규제가 없는 나라부터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트와이즈는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만성 심장 질환 환자의 심장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 의료진의 적기 진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준다.

라스베이거스=송영록 기자 syr@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모델들이 5G를 기반으로 차량 내부와 주변을 연결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콕핏 2020’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박일평(왼쪽 두 번째) LG전자 CTO 사장과 미하일 비코브(세 번째) 룩소프트 오토모티브 솔루션즈 부 사장이 협약을 맺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 “볼리 신기하네” “씽큐핏 대단해”

### 국내기업 전시부스 북적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7일(현지시간) 공식 개막하자 삼성전자와 LG전자, SK 등 국내 기업 전시관엔 발 디딤틈이 없이 인파가 몰렸다.

반면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 중국 메이저 IT 업체들은 대거 불참했다. 참가한 기업 전시관도 다소 한산했다.

삼성전자 전시장 입구 왼쪽에는 전날 기조연설에서 공개한 공모양의 동반자 로봇 ‘볼리’ 시연 장소가 마련됐다. 볼리 시연이 없는 시간에도 대형 화면에 펼쳐지는 볼리 동영상을 촬영하는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요리 보조 로봇 ‘삼성봇 셰프’의 도움을 받아 요리하는 모습도 시연됐다. 큐브 냉장고, 신발관리기, 식물재배기 등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가전들도 전시했다.

LG전자 전시관은 입구부터 관람객들의 환호성을 자아내는 광경이 연출됐다. 올레드 사이니지 200여 장을 이어 붙여 만든 조형물에 눈길을 떼지 못했다.

사람 대신 다양한 로봇이 안내, 주문, 서빙, 요리 등을 담당하는 ‘클로이 테이블’도 인기였다. 아바타에 옷을 입혀 볼 수 있는 씽큐핏(ThinQ fit), 자율주행차를 구현한 커넥티드카 등에도 관람객들이 가득했다.

SK그룹 통합 전시관의 CIS(CMOS 이미지센서) 체험존에서는 방문객들이 부스에 전시된 스마트폰으로 본인을 촬영하면 CIS가 피사체를 인식하고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해서 사진으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전시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CES 개막전부터 IT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인공지능 프로젝트 ‘네온’ 전시관도 눈길을 끌었다.

라스베이거스=송영록 기자 syr@

# 삼성, BMW에 전장장비 첫 공급... LG, 전장 합작사 설립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전장 사업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BMW에 5G 기반 차량용 통신 장비를 최초 공급하고, LG전자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해 지능형 모빌리티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나선다.

두 회사는 앞으로 전장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 업체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 5G 기반의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 2020’과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적용한 TCU 기술 등 전장 사업을 공개했다.

이날 삼성전자 전장사업부장 박종환 부

## 삼성, 하만과 공동개발 ‘5G TCU’ BMW 전기차 탑재 LG, 룩소프트와 차세대 자동차 분야 JV 상반기 설립

사장은 “하만과 공동 개발한 5G TCU(텔레매틱스 컨트롤 유닛·차량용 통신장비)가 2021년에 양산되는 BMW의 전기차 ‘아이넥스트(iNEXT)’에 탑재된다”고 밝혔다.

5G TCU는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차량에 제공하고, 다양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탑승자는 주행 중에도 고화질 콘텐츠와 HD맵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끊김 없이 화상 회의를 하거나 게임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다.

안전도 책임진다. 5G TCU 기술을 통해 V2X(차량 사물간 통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강화돼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의 위험 상황과 주행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했다.

또 삼성전자는 차량 내부에 분산된 여러 안테나를 통합하는 ‘컨포멀(Conformal) 안테나’로 차량 상단에 보이는 ‘샤크핀(Shark Fin) 안테나’를 대체했고, 컨포멀 안테나도 TCU와 통합해 더욱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같은 날 LG전자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룩소프트(Luxoft)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양 사는 올 상반기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산타클라라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한다. 조인트벤처는 웹OS 오토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콕핏,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서비스 등을 개발한다.

차량용 SW 개발 역량, 글로벌 영업채널 등 양사의 강점을 토대로 웹OS 오토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은 “조인트벤처의 설립은 웹OS 오토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차세대 IVI(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을 통해 미래 커넥티드카의 새로운 고객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송영록 기자 syr@

## “하늘 나는 자동차는 시기상조”... 현대차에 견제구 날린 벤츠

### 칼레니우스 회장 기조연설서 비판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이 현대자동차의 미래 전략을 작성하고 비판했다. CES 개막 ‘기조연설’을 통해 나온 발언인 만큼, 행간에 담긴 의미에 갖가지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올라 칼레니우스(사진) 다임러그룹 이사회 의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CES는 매년 우리에게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던진다”며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오늘 이 목표의 의

2020 개막을 하루 앞두고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는 ‘지속 가능한 모던 럭셔리’를 주제로 사람과 기술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칼레니우스 회장은 “CES는 매년 우리에게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던진다”며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오늘 이 목표의 의

미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오늘 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람과 기계 사이의 연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CES 화두로 떠오른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해 연설 초반부터 부정적 견해를 밝혀 관심이 쏠린다.

칼레니우스 회장은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은 이미 존재한다. 훌륭한 창업가 팀이 만든 ‘볼로콥터(Volocopter)’를 예로 들 수 있다”며 이동 비행체에 대해 언급했다.

칼레니우스 회장은 “솔직히 말해서 이와 같은 이동수단을 표준적인 이동 수단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감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대차가 제시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은 물론, 현대차의 전략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개막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기업별 핵심 주제가 이미 공개된 가운데, 특정 기업의 전략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놓은 것 자체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라스베이거스=김준형 기자 junior@

# 허리띠 졸라매는 은행... 뱅커들은 '고난의 행군'

# 지난해 퇴직을 한 시중은행 지점장 정도 씨는 은행 선배의 권유로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사업에 뛰어들었다. 경기도 지역에 수백 평의 땅을 사들여 농지를 가꾸 직접 농산물을 재배해 직거래하는 사업이다. 입소문을 타고 사업이 재미를 보고 있다. 지난해 퇴직한 또 다른 은행원은 퇴직금을 전부 투자해 강원도 인근에서 펜션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부터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신한은행을 포함해 연말·연초 은행권에서 약 2000명이 집을 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명퇴자들은 예년처럼 인생 2막을 설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퇴직을 신청한 이모 씨는 "선배들이 하던 대로 했다가는 승산이 없을 것 같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퇴직금이 얼마 안 돼 새로운 일을 찾지 못한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당장 쓸 수가 없어 당분간 예전 거래처였던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다.

대규모 희망퇴직은 장기적으로 은행의 인건비 절감과 조직 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퇴직금에 더해 수십 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을 준비해야 하고, 자녀학자금 지원, 재취업지원금, 건강검진비 등 각종 복리후

## 뱅크들의 인생 2막 '그림의 떡'

연말·연초 은행 퇴직자 2000명  
수익 악화에 특별퇴직금도 줄어  
퇴사 후 옛 거래처 들며 구직활동

## 고령층 '금융 불평등' 심화 우려

모바일 인터넷뱅킹 비중 50% ↑  
시중銀, 이달 85개 점포 통폐합  
고객 쏠림현상에 업무 지연 불가피

생비를 한 번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은 2015~2018년 희망퇴직을 포함한 해고·희망퇴직급여로 연평균 9592억 원을 지출했다. 여기에 일반 퇴직금을 더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거래의 특별퇴직금은 은행들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희망퇴직금으로 4대 은행 중 가장 많은 2682억 원을 지출했다. 그 결과 1년간 지켰던 '리딩뱅크' 자리를 신한은행에 빼앗겼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특별퇴직금을 주거나 인력구조 조정이 급선무였는데 앞으로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특별퇴직금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점을 대폭 정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모바일을 활용한 인터넷뱅킹 거래 비중은 53.2%를 기록, 처음으로 50% 선을 넘었다. 고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영업점과 운영·관리 비용이 드는 현금 자동입출금기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이달 말까지 총 85개 점포

를 통폐합한다. KB국민은행이 이달 7일과 20일 각각 1개, 37개 등 38개 점포를 정리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도 이달 18개의 점포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3개와 4개 점포를 통폐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4대 시중은행 국내 점포 수는 2015년 3924개에서 2016년 3757개, 2017년 3575개, 2018년 3563개로 감소 추세다. 올해 1분기에는 3460여개로 줄게 된다.

시중은행은 비대면 영업 확대에 따른 지점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 지점을 중심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다. 지역별 거점 점포를 중심으로 중소형 지점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 협업과 연계영업을 통해 점포 효율을 높여 불필요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영업점이 줄면서 일할 수 있는 인력도 함께 줄어 40대 차·과장급부터 명퇴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은행 때문에 은행원들은 명퇴 압박에 시달린다. 고통의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비대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들의 금융정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영업점이 줄면서 창구를 찾는 인원 쏠림 현상으로 업무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점이 줄면서 비대면 서비스에 약한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금융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줄어드는 영업점으로 고객들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날 등 일반 고객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보험업계도 '조직 다이어트'

### 보험업권 인력감축 현황

시행일자	업체명	제도명	퇴직기준
2019년 12월	동양생명	특별퇴직 시행	2020년에도 시행 예정
	롯데손해보험	희망퇴직 시행	10년 이상 근무직원 대상
2019년 11월	NH농협생명, 손해보험	명예퇴직 시행	10년 이상, 만 40세 이상 직원
2019년 10월	DGB생명	희망퇴직 시행	16년 이상, 46세 이상 직원
2019년 7월	KB손해보험	희망퇴직 시행	20년 이상 근무 직원

## 동양생명, 특별퇴직제 추가 신설 공채 대신 수시 경력직 채용 강화

보험업권이 인력 슬림화를 통한 비용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양생명은 희망퇴직에 이어 '특별퇴직'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공채 제도를 없애고 수시 경력직 채용을 강화해 점차 인력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해 12월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특별퇴직 제도는 자발적 퇴직에 대해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시퇴직 지원 제도다. 최근 근무 10년 이상 일반직 만 50~53세, 사무직 만 45~48세 직원 중 희망자로부터 퇴직신청을 받고 회사가 승인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노사 간 합의된 사항으로 올해에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퇴직위로금은 일반직 만 50세 기준 기본보상 최대 38개월치, 장기근속의 경우 최대 5개월치를 추가 지급하며 창업준비자금 3000만 원 등의 기타 지급조건이 있다.

이는 희망퇴직 이후 10개월 만이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2월 나이 45세, 재직기간 15년 이상자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다만 당시 신청자는 10여 명에 그쳤다. 이번에도 신청 직원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비용 감축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생명의 인력 감축은 추가 유상증자 등을 약속했던 대주주인 인방그룹이 중국

정부의 위탁경영을 받게 되며 자금 지원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매각을 대비한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2022년 새 회계기준(IFRS17)과 새 건전성 기준인 K-ICS 도입에 따른 자본 확충 부담 문제다. IFRS 17 도입으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보험사들은 RBC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추가로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저금리 고령화 등 구조적인 업황 부진도 이유 중 하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황이 좋지 않으면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이라며 "특히 중소형 보험사들은 지점 통폐합 등의 비용 감축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실제 동양생명 이외에도 보험사들은 경영환경이 악화하자 희망퇴직을 통한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지난해 롯데손해보험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NH농협생명은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DGB생명은 16년 이상 근무한 46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KB손해보험도 희망퇴직을 시행해 70명이 퇴사했고, 한화손해보험은 희망퇴직을 시행해 30여 명이 퇴사했다.

서지연 기자 sij@

KB 금융그룹 | 국민 생명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가족 모두 건강해야 하니까 희망 가득 드릴게요!

우리는 많은 날을 살아갑니다  
아픈 날도, 아프지 않은 날도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가족 모두를 든든하게 케어해주는  
건강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생활 속 다양한 보장과 케어를 하나로!  
☎️ **KB The드림365건강보험**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2125호 (2019.01.07)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지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계약한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수출 올해도 가시밭길... 친환경차로 위기 넘는다

### 현경妍 “환경규제에 수요 줄 듯”... 친환경차 기술 보유 韓 기회 친환경차 수출 비중 10% 넘어... 정부 “전기·수소차 성능 개선”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가 세계경기 회복 지연,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 감소가 예상돼 올해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친환경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정부의 친환경차 수출 확대 정책과 맞물린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

차, 한국지엠(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5개 완성차 업체의 지난해 해외 판매 대수는 모두 줄었다.

현대차(368만802대)와 기아차(225만488대)는 신형시장 수요 위축과 판매 부진으로 2018년과 비교해 수출 물량이 각각 4.8%, 1.3% 감소했다. 르노삼성차(9만591대)와 쌍용차(2만5010대)도 수출이 각각 34.0%, 23.9% 급감했으며 한

국지엠(34만755대)도 7.8% 줄었다.

문제는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 ‘2020 주요 산업별 경기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올해 자동차 수출은 세계 경기의 제한된 회복과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를 근거로 한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검토 등 자동차 관세 분쟁 발생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시장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라는 위기가 오히려 친환경차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춘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친환경차 비중은 2015년 3만9000대로 1.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월까지 23만2000대를 수출해 10.6%로 경종 뛰었다. 2013~2019년 친환경차 수출 누적 대수는 70만 대를 돌파했으며 특히 지난해 전기차 수출 대수는 전년 대비 약 90%, 수소차는 약 230%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의 장점은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이다. 일반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전기차의 수출가격은 평균 99%, 수소차의 수출가격은 무려 263%가 더 높다. 이는

친환경차 수출 증가로 국내 자동차 생산 정체에도 지난해 수출금액이 전년 대비 5.3% 증가한 430억7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정부는 친환경차의 수출 비중이 현재 10% 수준에서 2030년 25%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 함께 국내 보급을 늘리고 차량 성능 향상, 부품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141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가한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8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aT센터에서 열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취업 준비생에게 체계적인 채용 정보와 취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공정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사진은 구직자들이 붐비는 박람회장의 입구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 11월 내국인 해외채권투자 '뚝'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 감소

### 美, 금리 세 차례 인하하자 국민연금·KIC 등 차익 실현

### 국민연금 KIC 보험사 등의 해외채권 투자 (단위: 억 달러, 국제수지 기준)



내국인의 해외채권투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미국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인하하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금리가 하락하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섰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내국인의 해외채권 투자를 의미하는 부채증권 투자는 14억7560만 달러(1조7227억 원) 급감했다. 이는 작년 8월 이후 4달 연속 감소세이며, 2008년 11월 19억7890만 달러(2조7508억 원) 감소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이다.

기관별로 보면 일반정부가 1년 이상 장기증권에서 8억6430만 달러(1조90억 원)를 매도했다. 일반정부는 작년 4월 이후 8개월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8월(11억3130만 달러)과 9월(13억9190만 달러)에는 각각 10억 달러 이상 매도를 기록한 바 있다.

기타금융기관은 7억4270만 달러(8671억 원)를 매도해 두 달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종목별로는 1년물 이상 장기물에서 6억6810만 달러를, 1년물 미만 단기물에서 7460만 달러를 각각 매도했다. 특히 장기물에서는 2018년 7월(2억8930만 달러) 이후 1년 4개월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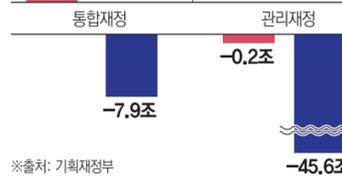
이는 미 연준이 7월과 9월에 이어 10월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연준이 보험성 인하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과거 이 같은 인하 시 최대 3회 인하가 마지막 금리인하였다. 점을 고려하면 차익 실현의 마지막 기회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 국가 재정적자 사상최대... 통합재정수지 7.9조 적자

### 기재부 '재정동향 1월호' 11월 국제수입 3000억 감소

### 재정수지 규모 (단위: 원)



지난해 1~11월 누계 세수가 전년 동기보다 3조3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계 통합·관리재정수지는 각각 7조9000억 원, 45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총수입은 29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1~11월 누계 총수입은 43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6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제수입은 11월 16조2000억 원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누계로도 276조6000억 원으로 3조3000억 원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부가가치세가 환급액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1조8000억 원 준 계 11월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다. 예산 기준 진도율은 93.8%로 전년 동기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단 기재부는 "12월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세수 증가가 예상돼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인 294조8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11월 누계 세외수입은 22조 원으로 1조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136조7000억 원으로 7조 원 증가했다.

누계 총지출은 443조3000억 원으로 47조9000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93.2%로 전년 동기보다 1.9%P 상승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는 7조9000억 원 적자, 45조6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 원 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고채권이 5조8000억 원, 국민주택채권이 1000억 원 늘어나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공공기관 2만5653명 채용... 작년보다 2000명 늘어

### 고졸채용 3년 내 10%로 확대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 전환

명 이상 늘어난 2만56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만3284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다.

올해는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연구인력, 에너지 및 보건으로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등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인재를 중심으로 채용한다.

또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채용,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 채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한 공공기관 고졸채용 목표제의 경우 2023년까지 현재 9.0% 수준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도 2022년까지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1만여 명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9만6000명 중 8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을 2만5653명 채용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년 계획 대비 2000

## 올 공공기관 SOC에 60조 투자... 예타 7개월로 단축

### 경제활력대책회의

###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62% 일자리 예산 1분기 3분의 1 집행

공공기관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60조 원을 투자한다. 투자가 원활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통상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7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종·위례 등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철도·고속도로 건설 등 SOC 분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설정했다. 일자리 예산은 3분의 1을 1분기에 집행한다. 홍 부총리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예산집행지침에 대한 조기 통보, 1월 자금배정 조기 완료는 이미 조치했다"며 "출연·유자사업 사업공고, 총액계상 사업에 대한 내역협의 등도 1월 내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예산 적기 집행을 위해선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하반기 도입 예정사업 추진에 대해선 관련 제도기반 마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민생·경제활력 방안들의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행정부차

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데이터 3법 관련해선 가이드라인 보완,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또 수소경제법 통과 전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선 규제를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담은 핵심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긍정적 기회 요인은 극대화하고, 불확실한 리스크 요인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신한카드의 3 초



예상치 못한 연결로 뜻밖의 감동을 드립니다

신한 PayFAN



우리의 데이터로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드립니다

MySHOP # Partner



그동안 카드가 하지 못한 일로 새로운 경험을 드립니다

My 송금

이런 세상을 당신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신한카드, 초월하는 가치를 만들다

## 초연결

상품 서비스와 마케팅을 연결,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 초협력

고객,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나갑니다

## 초확장

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의 미래 금융을 선도합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191223-Exn-001호(2019.12.23)

# 한국당 “동탄 택지개발 개입 의혹”… 丁 “기가 막혀”

##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무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마무리됐지만 국회 인준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경기도 화성 동탄 택지개발 사업 개입 의혹에 대해 날 선 공격을 이어갔다. 한국당 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틀째인 8일 화성도시공사 정 후보자의 측근인 신장용 전 의원 측에 특혜성 택지 공급을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다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기가 막힐 일”이라며 “이렇게 귀한 시간을 여러 번 소비해야 하느냐”, “청문회가 더 오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주장도 계속됐다. 주호영 의원은 “다른 총리와는 달리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국회의장을 겸하는 총리”라며 “처신 자체가 국회 위상과 관련이 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 한국당 반대에 인준 난항 예상 민주당 13일 동의안 표결 방침 ‘4+1’ 공조에 통과 무난할 듯

입법부의 위상과 관계가 있어서 그런 점에 유의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며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원자력발전만 예산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신재생에너지만 예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우리 형편에 맞게 어떻게 적절하게 ‘에너지 믹스(조합)’를 해서 전기를 공급할 거냐,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유지할 거

냐, 아주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청문회는 이날로 마무리됐지만 한국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 향후 국회 인준 과정에서도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종료일을 포함한 3일 이내까지 청문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민주당은 13일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올려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이낙연 총리가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16일 이전에는 물러나야 해서 그 전까지 인준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사정도 있다.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관측이다.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데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과 넓은 친분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서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4+1협체(민주당·바른미래당·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중립성 위반 발언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당 ‘꽃제비’ 지성호·체육계 미투 김은희씨 영입

자유한국당은 8일 탈북자 출신 지성호(38) 인권 운동가와 체육계 미투 1호 인물인 김은희(29) 씨를 4·15 총선 대비 청년 인재로 영입했다. 1차 인재 영입에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발표해 논란이 된 지 두 달 만이다



황교안(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입한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왼쪽) 씨, 체육계 미투 1호인 김은희 씨와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영입 인사 환영식에서 지성호 북한인권청년단체 NAHU(나우) 대표와 김은희 고양테니스아카데미 코치를 2차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지 대표는 열네 살이던 1996년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려다 굶주림에 쓰러진 사이 사고를 당해 왼팔과 다리를 잃었다. 그는 목발을 짚은 채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탈북에 성공, 한국 땅을 밟았다. 2018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국정 연설에서 지 대표의 탈북 사연을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됐다.

지 대표는 환영식에서 “솔직히 한국당이 그동안 인권 문제 일을 제대로 못 한 게 사실이지만, 인권센터 등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변화에 대해 확신을 했다”고 밝혔다.

지 대표와 함께 영입된 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 코치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코치를 10여 년 뒤 고소했고, 2018년 한 방송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 주목받았다. 체육계 이면에 감춰진 실태에 경각심을 일깨운 것이다.

김 코치는 “자유한국당” 하면 인상부터 쓰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며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당의 색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고심하는 청와대

### 미국-이란 ‘준전시 상황’...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부담 美 파병 공식 요청... 파병 땀 이란서 한국 ‘적성국’ 간주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지역의 운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며 극도의 신중을 기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로선 부담이 큰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미국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나서 우리나라에 “파병을 원한다”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

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 고위급협의에서 미국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한 피격이 잇따르자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한국 등 동맹국에 공동방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요청이지만 사실상의 압박이다. 이에 일본은 이미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초계기를 파견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의 파병 요청 압박은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아덴만 해

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준전시상황’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정부의 결정이 한층 복잡해졌다. 파병을 결정하면 이란 입장에서 한국을 ‘적성국’으로 간주해 외교 관계가 크게 악화할 수 있다. 이란은 미국의 반격에 기댄다면 그들도 공격 목표라고 경고하고 나서 한국의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당분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카드를 완전히 접지 않으면서도 원유·가스 수급 등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든 호르무즈 해협 방위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충현 기자 lamuziq@

www.douzone.com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 인공지능 ERP

##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기업용 ERP**

- 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 영업관리
- 무역관리
- 구매·재재관리
- 생산관리
- 외주관리
- 서비스관리
- 경영정보관리
- 공사현장관리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 자산관리
-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 구매·재재관리
- 생산관리
- 외주관리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전자금융거래법〉

# 1 ○○페이, 후불결제 도입 '전금법 개정'이 최우선

## '페이 신용결제' 3가지 과제

한국 간편결제업계 후불 신용결제 기능 도입 논란이 재점화됐다. 그러나 연내 상용화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전자금융업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부터 기존 신용카드 업계와의 조율 문제, 신용결제 허용 범위와 업체 선정 기준까지 조율해야 할 사안이 넘친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신용결제 기능 제공으로 '페이 둘러막기' 등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간편결제 사업자는 장기 과제로 후불 신용결제 기능과 할부 서비스 등 신용공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단시일 내 서비스 시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월 핀테크업계가 후불결제를 건의했었고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는 건전한 관리 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소액은 이용자 편의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해의 핀테크 업체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신용결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데이터 3법도 국회 문턱 못 넘어 4월 총선 앞두고 입법 마비 변수

### 1 허용범위·업체 선정

대형사업자만 허용 땀 특혜 논란 핀테크 활성화 취지서 어긋나

### 2 관리·감독 부실

신용결제 무분별 거래 확대 우려 페이 둘러막기 등 부작용 가능성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업체들이 어떤 방안을 내놓는지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간편결제사 관계자 역시 "당장 외부에 후불결제 기능 시행 건의를 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서 간편결제 사업자에



소액 신용기능을 허용키로 했다. 기준은 월 30만 원 선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와 월 50만 원 수준의 이동통신사 후불 결제와 유사하며, 소액후불결제업을 신설해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후불 결제를 허용할 경우 그 범위와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지부터 난관이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일부 대형사업자에게만 후불 기능을 허용하면 핀테크 활성화 취지와 어긋난다. 자칫 특혜 의혹마저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간편결제 사업자에 후불결제를 허용하면 '페이 둘러막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다. 현재 카드사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1장당 30만 원까지 후불 결제가 허용되며 통합 발급 한도는 2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페이업계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기준 설정과 타업권과 합의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후불결제로 금융 거래 범위가 넓어지면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최근 3년간 간편결제 자금 흐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을 막기 위해 간편결제사에 지불준비금 준비와 개인 정보규제 강화, 일 거래제한 강화 등 규제

를 신설했다. 또 모든 개별은행으로 자금이체를 허용하던 것에서 은행 등 두 곳을 반드시 통하도록 했다.

이 밖에 4월 총선을 앞둔 국회가 사실상 입법 기능 마비에 빠진 것도 변수다. 페이업계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을 위해서는 전자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총선 일정과 이후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상반되는 물론, 연내 시행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당장 '마이데이터' 정책 시행을 위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 하나銀 '키코 협의체' 첫 스타트

### 자율 분쟁조정 참여 결정

KEB하나은행이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에 대한 자율 조정을 다루는 '은행 협의체'에 참여키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키코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분쟁 조정 대상이 된 4곳을 제외한 147개 기업에 대해 은행이 자율 조정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당국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11개 판매사가 참여하는 키코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 중 KEB하나은행이 처음으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10년 넘게 끌어온 키코 분쟁을 끝내고, 고객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사례를 정하고, 배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시선은 나머지 10개 판매사로 향한다. 은행들은 경영진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업계에선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사회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이 참여한 상황에서 마냥 협의체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참여=배상" 공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기업과 판매사 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며 협의체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우리·KEB하나·산업·대구·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은 내부 검토와 이사회 결정 과정이 필요하며 이날 금감원에 분쟁조정안 수락 결정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현대해상, 아이 선천적 기형까지 보장

###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 출시

현대해상은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증가된 임신·출산 관련 위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 '굿앤굿어린이 종합보험Q'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는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중병인 어린이CI(다발성 소아암, 4대장애, 양성뇌종양 등)를 비롯해 자녀배상책임, 시력교정, 비염 및 아토피 등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어린이보험에서 면책에 해당돼 보장되지 않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상해수술, 선천성 뇌질환으로 인한 질병입원, 응급실내원진료비 등을 보장해 (태아 가입시), 선천이상으로 인한 보장 공백을 없앴다.

스트레스나 잦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원형탈모증, 특정 언어장애 및 말더듬증에 대한 보



장을 신설했으며, 임신·출산 질환이나 유산 등으로 인한 입원 시 기존 4일 이상에서 입원 당일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 및 산모의 입원담보 보장 일수를 확대해 출산 위험에 대한 실질적 보장도 강화했다.

박재관 장기상품2파트장은 "선천이상 면책으로 인한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산모 고령화와 환경 변화로 인해 다변화된 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어린이종합보험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ij@

## 오늘의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 100% 유기농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녹차카테킨은 주원료인 녹차의 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국내산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독자적인 AP 녹차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 특허받은 녹차카테킨으로 한국인 건강맞춤

**고열량 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관리**  
메타그린 녹차 카테킨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를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대사 건강을 위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의 녹차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로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항산화 작용**  
녹차추출물과 비타민C를 함유,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대사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튜브에서 바이탈뷰티를 검색하세요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록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 삼성, 반도체 회복 기대...미국發 불확실성이 변수

## 지난해 잠정 영업이익 27.7조 전년 대비 '반토막'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났다. 매출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업황이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으며 부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체됐던 반도체 시장이 올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실적이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 갈등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제도 전반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 변수다.

삼성전자는 8일 작년 매출 229조5200억 원, 영업이익 27조7100억 원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전년(매출 243조7700억 원·영업이익 58조89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각각 5.85%, 52.95% 감소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실적이 하락한 주된 이유는 주력 사업인 반도체의 시장 상황이

## 데이터센터 구축 등 수요 확대 서버용 D램·낸드 상승 곡선 스마트폰 영업의 2.5조 선전

침체했기 때문이다. 2017~2018년 초호황기를 기록했던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고객사들이 재고를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악화했다. 매출의 약 50%를 반도체에 의존하는 삼성전자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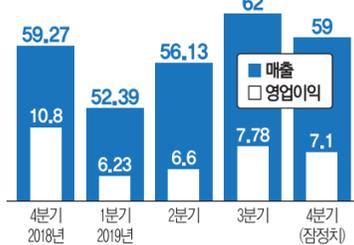
위기가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발표한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231조4883억 원, 27조1512억 원이다. 매출액은 전망치에 미달했지만, 영업이익은 5000억 원 가까이 넘었다.

삼성전자 연간 실적 (단위: 조 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잠정치)
매출	201.87	239.58	243.77	229.52
영업이익	29.24	53.65	58.89	27.71

※출처: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 추이 SAMSUNG (단위: 조 원)



특히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선방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삼성전자가 잠정 집계한 매출, 영업이익은 59조 원, 7조1000억 원이다. 당초 우려와 달리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6조5000억 원)를 웃돌았다. 서버 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D램,

낸드 출하량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M(IT·모바일) 부문은 2조500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갤럭시 노트10과 갤럭시 폴드의 선전 등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올해 반등을 노린다. 그동안 투자를 미뤘던 구글, 아마존 등 클라우드 업체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제조업체들의 본격적 5G 스마트폰 출시 또한 호재로 다가온다. 스마트폰 사양이 높아질수록 필요로 하는 반도체 양 또한 늘어난다.

반도체 가격은 이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에 주로 사용되는 D램(DDR4 8Gb 기준)의 지난해 12월 고정 거래가격은 2.81달러다. 작년 10월, 11월 가격과 같다. D램 가격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파르게 하락한 바 있다.

디램익스체인지는 보고서에서 "D램 가격이 지난해 10월 전월 대비 하락한 이후 줄곧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서버 D램 등 특정 제품 가격은 올해 1분기 상승세로 전환, 비교적 이른 시점에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낸드플래시는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낸드플래시 128Gb MLC(멀티 레벨 셀) 제품의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은 4.42달러로 전달보다 3%가량 상승했다. 지난해 저점이었던 3.93달러 대비 12% 올랐다.

다만 대내외적으로 남은 위기는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등 글로벌 경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복세에 접어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운 턴 국면에 접어들었던 반도체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만 글로벌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만큼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여기는 'CES 2020'

# 첫 참가한 두산...협동로봇이 커피 내려주네

무인굴착기 관제 솔루션  
수소전지 드론 등 선보여  
박정원 회장, 부스 방문

두산그룹이 설립 이래 최초로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 참가해 막을 올렸다.



두산은 7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0에서 비즈니스가 지향하는 새로운 미래상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

오랜 기간 수많은 국제 건설기계 전시회에 참가해 온 두산이 이번에 CES를 택한 것은 자신 있게 보여줄 IT 최첨단 기술들이 많아졌으며, 최첨단 기술이 모이는 현장에서 또 다른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어서다.

두산의 전시 부스는 로봇틱스, 드론, 인공지능(AI) 등이 전시되는 사우스(South) 2 홀에 위치해 있으며, 바로 옆에는 미국의 농기계 제조업체 '존디어'를 비롯해 근처에 세계적 드론 강자인 DJI 등의 부스도 마련돼 있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 두산 로봇이 CES 로고를 이용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두산 전시 부스는 크게 '컨스트럭션 투모로우(Construction Tomorrow)' '모빌리티 투모로우(Mobility Tomorrow)' '팩토리 투모로우(Factory Tomorrow)' '에너지 투모로우(Energy Tomorrow)' 4개로 구성된다.

드론을 이용한 3D 스캐닝으로 무인 굴착기 등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종합 관제 솔루션인 콘셉트 엑스(Concept-X), 두산밥캣의 스마트폰 원격 조종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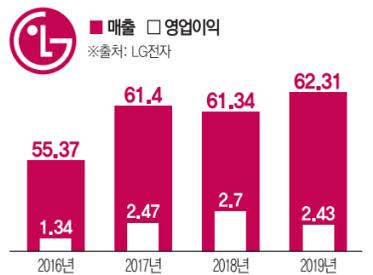
술과 증강현실(AR)을 적용한 작업지원 프로그램, 2시간 비행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드론, 드립 커피를 뽑아주는 협동 로봇의 퍼포먼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곳곳에 적용된 기술들을 볼 수 있다.

박정원(사진) 두산그룹 회장은 두산 전시 부스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 후 다른 기업들의 전시 부스도 둘러볼 계획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LG '스마트폰' 19분기 연속 적자 고민

'신가전 돌풍' 역대 최고 매출  
지난해 영업이익은 10% 줄어

LG전자 연간 실적 추이 (단위: 조 원)



LG전자가 지난해 신가전 판매 흥행에 힘입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스마트폰 사업이 계속 적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로 남았다.

LG전자는 8일 작년 매출 62조3060억 원, 영업이익 2조4329억 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연간 기준 사상 최대이며 3년 연속 60조 원을 상회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 줄었다.

LG전자가 매출 신기록을 달성한 데는 신가전의 힘이 컸다.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등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3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신성장 가전 제품이 해외 매출에서 두 자릿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프리미엄 가전 매출이 현재 전체 가전 매출의 50%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LG전자는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한 생활가전 사업이 하반기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하자, 전체 영업이익도 하락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16조610억 원, 영업이익 986억 원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증권가 평균 추정치(매출 16조4601억 원·영업이익 2791억 원)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MC사업분부는 작년 4분기를 포함해 19분기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LG전자의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2900만 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28%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새 폼팩터인 탈착형 디스플레이 '듀얼스크린'은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중저가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 삼성전자에 밀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LG전자는 스마트폰 ODM(제조업자가 발생산방식) 제품군을 확대한다. LG전자는 작년 3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ODM을 활용해 발생한 내부 연구개발 리소스를 프리미엄 개발에 투자해 이익을 발생하고, 이를 다시 투자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공략도 가속화한다. 플래그십 제품인 V60 씽큐와 성능이 강화된 듀얼 스크린은 2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0'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SK이노 경영진 "E-모빌리티 진화 상상 이상"

김준 사장 등 현지 전략회의  
"앞서면 기회, 뒤처지면 위기"

SK이노베이션 경영진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 올해 첫 전략회의를 열고 미래 E-모빌리티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E-모빌리티 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선 자사의 미래차 관련 제품을 의미하는 'SK 인사이드(inside)' 모델을 속도감 있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SK이노베이션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 김준(사진) 총괄사장과 지동섭 배



터리 사업대표, 노재석 SKIET 사장, 김철중 전략본부장 등 경영진 20여 명이 전시회를 둘러본 뒤 성장 방안을 토론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경영진은 기술개발, 글로벌, 그린이라는 회사 성장의 3대 방침을 모두 담고 있는 'SK 인사이드'의 실행력을 과감하게 높이자고 다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CES 2020에서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자회사와 함께 최첨단 배터리와 초경량·친환경 소재 및 각

종 유탄유제품 등을 패키지로 묶은 'SK 인사이드' 모델을 공개, 전시 중이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CES는 모빌리티 기술을 비롯해 인류의 삶을 더욱 풍족하게 해 줄 미래 기술이 전시되고 있다"며, "미래 기술, 특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E-모빌리티 분야 기술 발전은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는 속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E-모빌리티 진화 발전은 SK이노베이션에 매우 중요한 성장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 속도를 우리가 앞서 나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될 것"이라며 닥쳐올 가속화를 주문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넓어진 3세대 BMW 1시리즈 BMW 코리아가 8일 3세대 BMW 1시리즈를 공식 출시했다. 뉴 1시리즈는 모델 최초로 전륜 구동 방식을 택해 내부 공간이 늘어났다.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 35.69kg.m의 힘을 내며 복합 연비는 리터 당 14.3km다. 판매 가격은 트림별 4030만 원부터 최고 4940만 원이다.   
사진제공 BMW코리아

# 기업 살림 어려웠지만 NCSI 또 사상 최고치

<국가고객만족도>



## 삼성물산·롯데호텔 가장 높은 점수

2019년 국가고객만족도(NCSI)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고객 중심 경영이 빛을 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생산성본부와 조선일보,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해 2019년 국내 78개 업종, 329개 기업(대학)과 공공기관에 대한 NCSI를 조사한 결과, 76.7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76.5점)보다 0.2점(0.3%) 상승한 수치로, 1998년 NCSI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NCSI는 국내 혹은 해외에서 생산돼 국내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

족 수준의 정도를 모델링에 근거해 측정·계량화한 지표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57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법인이다. 국가경제개발 계획과 국가생산성 향상 계획을 지원했으며 국내 최초 컨설팅·교육 전문기관으로 '경영'의 개념 및 '컨설팅'을 보급하고 경영전문가를 육성했다.

현재는 생산성연구소자, 지수조사발표, 컨설팅, 교육, 자격인증 사업 등을 통해 개인, 기업, 국가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NCSI 조사 결과, 전체 329개 조사대상 기업 중 아파트 업종의 삼성물산과 호텔 서비스 업종의 롯데호텔이 8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객만족도 상위 10위권에는 호텔이 무려 7개나 포함되며 호텔 서비스의 우수성이 전년대와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톱 10에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세브란스병원도 포함됐다. 김유진 기자 eugene@

## SK텔레콤·KT, 제조통신 분야 선두

### 고객만족경영 우수 기업

#### 서비스 분야에선 롯데百貨·삼성카드

2019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제조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동전화)과 KT(IPTV)였다.

SK텔레콤은 NCSI 조사에서 22년 연속 이동통신 부문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등 혁신적 5G 서비스 선도를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작년 4월 세계 최초 5G 론칭 이후 고객과 사회에 5G 기반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KT는 올레tv를 통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차별화를 추구하며 10년 연속 가입자 1위는 물론 IPTV 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선도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레tv는 변화하는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나만의 가상 TV '슈퍼 VR tv' △내 마음대로 이동 가능한 초소형 무선 셋톱박스 'UHD IV' 등 '나만을 위한 인공지능(AI) tv'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고객만족경영을 펼친 곳으로는 백화점 부문에선 롯데백화점, 신용카드 부문에선 삼성카드가 선정됐다. 롯데백화점은 고객중심 경영을 중시하는 강희대 롯데소유 통합대표이사 부회장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면서 NCSI 조사에서 10년 이상 백화점 부문 1위를 지속하



SK텔레콤 홍보 모델이 5G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편안함과 친근함을 의미하는 롯데다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판단의 기준점을 고객으로 잡고 고객 관점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유통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A World of Trust over The Card (카드를 넘어 신뢰의 세상을 만든다)'라는 비전 아래, 차별화된 마케팅과 창의적 상품·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생활 속 가치와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고 있다.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자율주행 도입하는 車업종 올해 상승 기대

### 업종별 만족도 전망

올해 자동차 업종의 소비자만족도가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생산성본부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5G 이동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올해도 이어지면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자업종 부문에서는 올해 '차별화의 가치'를 핵심으로 꼽았다.

비내구재 제조업 부문의 경우 남성 정장구두 업종은 다양한 고객군의 필요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남성 캐주얼 의류는 브랜드의 독자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웃도어 산업은 다른 산업군과는 다른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용 화장품 시장은 브랜드보다 성분을 중시하는 추세가 심화할 전망이다. 식음료 업종에서는 세분화,

전문화, 새로움이 핵심이다. 생산성본부는 올해 자동차 업종의 NCSI가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현대·기아차가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앞서고 있다.

아파트 업종에서는 건설사들의 상품 차별화, 서비스의 고도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업은 올해 고객만족 수준이 정체 또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도 경기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 강화 등 악재도 많다.

대학교육서비스업 부문은 만족도 개선이 어려워 전망이다.

기타 서비스 부문 중 항공산업 전반의 전망은 공급과잉, 일본 불매 운동 여파 등으로 밝지 않다.

렌터카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사 서비스업은 고객의 필요를 반영한 신상품을 선보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 2019년 NCSI 순위 및 점수

순위	기업	업종	점수	순위	기업	업종	점수	순위	기업	업종	점수
1	삼성물산	아파트	85	111	CJ대한통운	택배	77	221	한진필드일파	남성캐주얼의류	76
2	롯데호텔	호텔	85	112	신세계백화점	백화점	77	222	신성대학교	전문대학	76
3	JW메리어트호텔서울	호텔	84	113	네이버	검색포털	77	223	기아자동차	RV	76
4	더플러자	호텔	83	114	삼성카드	신용카드	77	224	한진	택배	76
5	인터컨티넨탈호텔	호텔	83	115	기아자동차	경형승용차	77	225	경찰행정	경찰행정	76
6	대구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83	116	텐디	남성정장구두	77	226	나미	아웃도어의류	76
7	호텔신라	호텔	83	117	VIPS	패밀리레스토랑	77	227	이스타항공	저비용항공	76
8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	83	118	GS건설	아파트	77	228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76
9	세브란스병원	병원	82	119	LG전자	개인용컴퓨터	77	229	코오롱인더스트리	아웃도어의류	76
10	웹스타호텔	호텔	82	120	현대자동차	중형승용차	77	230	오케이캐리어	에어컨	76
11	서울성모병원	병원	81	121	현대해상	손해보험	77	231	코카콜라음료	음료	76
12	위커피호텔	호텔	81	122	삼성전자	TV	77	232	KT	국제전화	76
13	영남이공대학교	전문대학	80	123	아시아나항공	국제항공	77	233	KT	IPTV	76
14	삼성서울병원	병원	80	124	하이트린로	소주	77	234	진에어	저비용항공	76
15	서울대학교	국립대학교	80	125	아시아나항공	국내항공	77	235	TG삼보컴퓨터	개인용컴퓨터	76
16	성균관대학교	사립대학교	80	126	롯데아이몰	인터넷쇼핑몰	77	236	푸레주류	베이커리	76
17	롯데면세점	면세점	80	127	롯데리아	패스트푸드	77	237	렌나이	의류렌조기	76
18	충남대학교	국립대학교	79	128	기아자동차	중대형승용차	77	238	JTI 코리아	담배	76
19	사일	여성용화장품	79	129	청초나이스	정수기	77	239	LG U+	이동전화서비스	76
20	신세계면세점	면세점	79	130	르노삼성자동차	중형승용차	77	240	LG U+	국제전화	76
21	서울대학교병원	병원	79	131	GS SHOP	인터넷쇼핑몰	77	241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76
22	경희대학교	사립대학교	79	132	하이트린로	맥주	77	242	한국철도공사	철도	76
23	고대안암병원	병원	79	133	매일유업	우유발효유	77	243	11번가	오픈마켓	76
24	애플	태블릿PC	79	134	KT&G	담배	77	244	숙명여자대학교	사립대학교	76
25	이주대학교병원	병원	79	135	올리브영	헬스앤뷰티전문점	77	245	대한항공	국내항공	76
26	현대자동차	대형승용차	79	136	NH투자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7	246	한국지엠	중대형승용차	76
27	삼성전자	스마트폰	79	137	르노삼성자동차	중대형승용차	77	247	해태음	음료	76
28	서울이산병원	병원	79	138	롯데칠성음료	음료	77	248	대전보건의대학교	전문대학	76
29	밀레니엄힐튼서울	호텔	79	139	LG U+	초고속인터넷	77	249	HP	개인용컴퓨터	76
30	한국아쿠르트	우유발효유	79	140	오뚜기	라면	77	250	KT	이동전화서비스	76
31	경희의료원	병원	78	141	엘리트	남성정장구두	77	251	건국대학교	사립대학교	76
32	광주보건대학교	전문대학	78	142	LG전자	TV	77	252	한국씨티은행	은행	75
33	LG전자	인터넷조기	78	143	블랙야크	아웃도어의류	77	253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75
34	롯데백화점	백화점	78	144	기아자동차	중형승용차	77	254	한국지엠	중형승용차	75
35	LG전자	제습기	78	145	SK텔레콤	이동전화서비스	77	255	홍앤홍	TV홍쇼핑	75
36	삼성물산(빈돌)	남성캐주얼의류	78	146	교보문고	대형서점	77	256	KFC	패스트푸드	75
37	경북대학교	국립대학교	78	147	LG전자	스마트폰	77	257	T.G.I. 프라이데이	패밀리레스토랑	75
38	KT	우선전화	78	148	쿠쿠전자	전기밥솥	77	258	SSG닷컴	인터넷쇼핑몰	75
39	LG전자	에어컨	78	149	SK칼텍스	주유소	77	259	건국대학교병원	병원	75
40	상수도	상수도	78	150	티웨이항공	저비용항공	77	260	애슬리	패밀리레스토랑	75
41	오비맥주	맥주	78	151	위니아대우	에어컨	77	261	티아항공	국제항공	75
42	우정사업본부	우편	78	152	충북대학교	국립대학교	77	262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75
43	한양대학교병원	병원	78	153	케이투코리아(K2)	아웃도어의류	77	263	버거킹	패스트푸드	75
44	기아자동차	대형승용차	78	154	롯데시네마	영화관	77	264	위니아대우	냉장고	75
45	영원아웃도어	아웃도어의류	78	155	위니아대우	제습기	77	265	육신	오픈마켓	75
46	우정사업본부	택배	78	156	롯데주류	맥주	77	266	세우행정	세우행정	75
47	삼성전자	에어컨	78	157	L(에이스)	남성캐주얼의류	77	267	교보생명	생명보험	75
48	금강제화	남성정장구두	78	158	남양유업	우유발효유	77	268	블스	헬스앤뷰티전문점	75
49	리얼코리아	여성용화장품	78	159	한양대학교	사립대학교	77	269	한국지엠	중형승용차	75
50	SK텔레콤	국제전화	78	160	G마켓	오픈마켓	77	270	티몬	오픈마켓	75
51	신라면세점	면세점	78	161	삼성생명	생명보험	77	271	신한카드	신용카드	75
52	LG전자	정수기	78	162	전남대학교	국립대학교	77	272	동아오츠카	음료	75
53	서울우유	우유발효유	78	163	비싸카드	신용카드	77	273	대덕대학교	전문대학	75
54	LG전자	무선청소기	78	164	롯데글로벌로지스	택배	77	274	LG U+	IPTV	75
55	삼성전자	태블릿PC	78	165	경상대학교	국립대학교	76	275	신한금융투자	증권 금융상품매매	75
56	애플	스마트폰	78	166	롯데이시하주류	맥주	76	276	쌍용자동차	RV	75
57	LG전자	공기청정기	78	167	BAT 코리아	담배	76	277	SC제일은행	은행	75
58	현대자동차	중형승용차	78	168	현대홈쇼핑	TV홍쇼핑	76	278	쿠렌	전기밥솥	75
59	CJ오쇼핑	TV홍쇼핑	78	169	현대자동차	RV	76	279	롯데건설	아파트	75
60	농심	라면	78	170	형지스카라이	남성정장구두	76	280	영풍문고	대형서점	75
61	롯데렌탈	렌터카	78	171	중앙대학교병원	병원	76	281	포스코건설	아파트	75
62	KT	초고속인터넷	78	172	한빛닷컴	인터넷쇼핑몰	76	282	한국투자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5
63	롯데주류	소주	78	173	롯데카드	신용카드	76	283	한국투자증권	증권 위탁매매	75
64	롯데마트	대형마트	78	174	한국필름모리스	담배	76	284	웅진식품	음료	75
65	LG전자	김치냉장고	78	175	쿠쿠전자	정수기	76	285	위니아대우	세탁기	75
66	에이부산	저비용항공	78	176	모두투어	여행사	76	286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75
67	LG생활건강	여성용화장품	78	177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76	287	아주대학교	사립대학교	75
68	LG전자	세탁기	78	178	한국지엠	소형승용차	76	288	대우건설	아파트	75
69	현대자동차	중대형승용차	78	179	하이네켄	맥주	76	289	부산대학교	국립대학교	75
70	삼성화재	손해보험	78	180	캐시퍼시픽항공	국제항공	76	290	쓰레기수거	쓰레기수거	75
71	삼성전자	개인용컴퓨터	78	181	삼가퍼시픽항공	국제항공	76	291	조선이공대학교	전문대학	74
72	이화여자대학교	사립대학교	78	182	현대m&ll	인터넷쇼핑몰	76	292	S-OL	주유소	74
73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78	183	르노삼성자동차	중형승용차	76	293	우리은행	은행	74
74	Cjmall	인터넷쇼핑몰	78	184	빈디엔투스	대형서점	76	294	카카오	증권 위탁매매	74
75	다이소	맥주	77	185	전북대학교	국립대학교	76	295	미리예셋대우	증권 금융상품매매	74
76	삼성전자	냉장고	77	186	대한항공	국제항공	76	296	미래에셋생명	생명보험	74
77	웅진코웨이	정수기	77	187	카카오	검색포털	76	297	현대카드	신용카드	74
78	다이소	무선청소기	77	188	인화생명	생명보험	76	298	KB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4
79	원광보건대학교	전문대학	77	189	KEB하나은행	은행	76	299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립대학교	74
80	삼성전자	의류렌조기	77	190	무학	소주	76	300	인하대학교	사립대학교	74
81	KT	인터넷전화	77	191	전력공급	전력공급	76	301	가천대길병원	병원	73
82	삼성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7	192	SK매직	정수기	76	302	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	73
83	삼성전자	무선청소기	77	193	LG U+	인터넷전화	76	303	충청대학교	전문대학	73
84	롯데홈쇼핑	TV홍쇼핑	77	194	KB국민카드	신용카드	76	304	푸르덴셜생명	생명보험	73
85	삼성증권	증권 위탁매매	77	195	이마트	대형마트	76	305	동국대학교	전문대학	73
86	하나투어	여행사	77	196	SK에너지	주유소	76	306	현대건설	아파트	73
87	SK브로드밴드	무선전화	77	197	소다	남성정장구두	76	307	경남정보대학교	전문대학	73
88	동일드빙레(리조트)	남성캐주얼의류	77	198	메가박스	영화관	76	308	NH투자증권	증권 위탁매매	73
89	KB손해보험	손해보험	77	199	홈플러스	대형마트	76	309	강원대학교	국립대학교	73
90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77	200	A렌터카	렌터카	76	310	연세대학교	사립대학교	73
91	위닉스	제습기	77	201	현대백화점	백화점	76	311	동국대학교	사립대학교	73
92	아모레퍼시픽	여성용화장품	77	202	대전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76	312	신한생명	생명보험	72
93	파리바게트	베이커리	77	203	삼성전자	세탁기	76	313	침양대학교	전문대학	72
94	기아자동차	중형승용차	77	204	구글코리아	검색포털	76	314	중앙대학교	사립대학교	72
95	코스트코홈세일	대형마트	77	205	빙그레	우유발효유	76	315	대림산업	아파트	72
96	팔도	라면	77	206	맘스터치	패스트푸드	76	316	서강대학교	사립대학교	72
97	KB국민은행	은행	77	207	메리츠화재	손해보험	76</				



한국생산성본부 · 미시간대학 조사

# 2019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최우수기업



##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Since 1998)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 소개된 기업 및 대학 등은 고객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기업 및 대학 등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b>아파트</b> 22 years winner 1998~2019 삼성물산 래미안	<b>스마트폰</b> 8 years winner 14 years winner 1998~2011 2012~2019 SAMSUNG Galaxy	<b>이동전화 서비스</b> 22 years winner 1998~2019 SK 텔레콤	<b>우유/발효유</b> 22 years winner 1998~2019 한국야쿠르트
<b>백화점</b> 17 years winner 2003~2019 롯데백화점	<b>TV</b> 17 years winner 2003~2019 QLED 8K	<b>생명보험</b> 16 years winner 2004~2019 삼성생명	<b>세탁기</b> 14 years winner 2006~2019 LG TROMM
<b>신용카드</b> 12 years winner 2008~2019 비씨카드	<b>주유소</b> 11 years winner 2009~2019 GS칼텍스	<b>베이커리</b> 11 years winner 2009~2019 PARIS BAGUETTE	<b>패스트푸드</b> 9 years winner 2011~2019 롯데리아
<b>방장고</b> 8 years winner 2012~2019 LG DIOS	<b>담배</b> 8 years winner 2012~2019 KT&G	<b>음료</b> 7 years winner 2013~2019 롯데칠성음료	<b>전문대학</b> 7 years winner 2013~2019 영남이공대학교
<b>경형승용차</b> 5 years winner 2015~2019 KIA	<b>렌터카</b> 5 years winner 2015~2019 롯데렌탈	<b>국제항공</b> 5 years winner 2015~2019 ASIANA AIRLINES	<b>제습기</b> 5 years winner 2015~2019 LG WHISEN 제습기
<b>소주</b> 4 years winner 2016~2019 처음처럼	<b>면세점</b> 3 years winner 2017~2019 LOTTE DUTY FREE	<b>호텔</b> 3 years winner 2017~2019 LOTTE HOTELS	<b>은행</b> 3 years winner 2017~2019 신한은행
<b>공기청정기</b> 2 years winner 2018~2019 LG PuriCare™ 공기청정기	<b>초고속인터넷</b> 2 years winner 2018~2019 kt	<b>중형승용차</b> 1 year winner 2019 KIA	<b>증권 금융상품매매</b> 1 year winner 2019 삼성증권



### NCSI는 국가경쟁력 지표

- NCSI는 우리나라 국가, 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측정, 평가,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국가경쟁력 지표입니다.
- 한국생산성본부와 미시간대학이 공동으로 개발, 조선일보와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 '19년 기준 조사 규모는 78개 산업, 329개 기업(대학), 총 표본수 89,110명입니다.

### NCSI는 Global Standard Index

- 미국 고객만족도(ACSI) 발표 ('94~)
- ACSI, 미국 연방정부 고객만족도 평가 모델 채택 ('99~)
- ACSI 모델 도입 국가
  - 영국,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EPSI)
  - 한국(NCSI), 일본(JCSI), 싱가포르(CSISG) 등 아시아 주요국
  - 브라질(BCSI), 콜롬비아(CIV) 등 남미 주요국

### NCSI 모델의 우수성

- Journal of Marketing 등 저명 학술지 발표를 통해 이론적 검증 완료 ('96)
-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행정 품질 지수 기본 모델로 채택 ('99)
- 공기업 고객만족도 측정, 평가 모델로 채택 ('99~'06)
- NCSI 10주년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NCSI의 기업 재무성과에 대한 공헌도 입증 ('08)

<b>손해보험</b> 19 years winner 2001~2019 삼성화재	<b>대형승용차</b> 8 years winner 11 years winner 2012~2019 2001~2011 상차 부문 1위 HYUNDAI	<b>중대형승용차</b> 8 years winner 11 years winner 2012~2019 2001~2011 상차 부문 1위 HYUNDAI	<b>중형승용차</b> 8 years winner 11 years winner 2012~2019 2001~2011 상차 부문 1위 HYUNDAI
<b>에어컨</b> 14 years winner 2006~2019 LG WHISEN	<b>RV</b> 14 years winner 2006~2019 HYUNDAI	<b>사립대학교</b> 13 years winner 2007~2019 성균관대학교	<b>택배</b> 13 years winner 2007~2019 우체국택배
<b>대형마트</b> 9 years winner 2011~2019 롯데마트	<b>병원</b> 9 years winner 2011~2019 세브란스	<b>IPTV</b> 9 years winner 2011~2019 SK브로드밴드	<b>초고속인터넷</b> 9 years winner 2011~2019 SK브로드밴드
<b>신용카드</b> 6 years winner 2014~2019 삼성카드	<b>국제전화</b> 6 years winner 2014~2019 SK텔레링크	<b>오픈마켓</b> 6 years winner 2014~2019 Gmarket	<b>중형승용차</b> 6 years winner 2014~2019 HYUNDAI
<b>은행</b> 5 years winner 2015~2019 KB국민은행	<b>RV</b> 4 years winner 2016~2019 KIA	<b>영화관</b> 4 years winner 2016~2019 롯데시네마	<b>김치냉장고</b> 4 years winner 2016~2019 LG DIOS 김치냉장고
<b>IPTV</b> 3 years winner 2017~2019 kt	<b>증권 금융상품매매</b> 2 years winner 2018~2019 NH투자증권	<b>TV</b> 2 years winner 2018~2019 LG 올레드 TV	<b>로봇청소기</b> 2 years winner 2018~2019 LG 코드제로 R9
<b>증권 위탁매매</b> 1 year winner 2019 삼성증권	<b>무선청소기</b> 1 year winner 2019 LG 코드제로 A9	<b>의류건조기</b> 1 year winner 2019 LG TROMM건조기	<b>정수기</b> 1 year winner 2019 LG PuriCare™ 정수기

※ 현재 10년 이상 연속 1위 기업 · 'years winner' 연속 1위 기간 · 본 광고는 NCSI 78개 조사대상 산업의 1위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광고입니다.

# 박정호 SKT 사장, CES서 미래 모빌리티 사업 속도

### 삼성전자 부스 찾아 신기술 시연... 협력 방안 논의 글로벌 기업 바이톤과 국내 전기차 출시 MOU 체결 '자율주행의 눈'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더 기술 공개

SK텔레콤이 모빌리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7일(현지시간) 개막한 'CES 2020'에 참가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신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사장은 직접 삼성전자 부스에서 차량용 콕핏(Cockpit)에 탑승해 서비스를 체험하는 등 신기술 시연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글로벌 전기차 기업 바이톤(Byton)사와 함께 차세대 전기차 시장을 위한 협력을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부장과 바이톤 다니엘 키르헤르트 CEO는 바이톤의 한국 출시 전기차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목표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바이톤은 BMW, 닛산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 출신 핵심 인력들이 2017년 홍콩에 설립한 전기차 업체로, 각종 모터쇼에서 기존

전기차의 성능과 기능을 뛰어넘는 품질을 선보이며 차세대 전기차 업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자사의 SUV 엠바이트(M-Byte) 차량 생산을 위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인 명신과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SK텔레콤과 바이톤은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차세대 'IVI(In-Vehicle Infotainment)' 발굴부터 개발, 차량 적용까지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걸쳐 협력한다. IVI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글로벌 대표 ICT 기업들이 앞다투어 관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 '통합IVI' 서비스가 48인치 초대형 곡선형 터치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디지털 활용 환경을 갖춘 바이톤 차량과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박정호(오른쪽) SK텔레콤 사장과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내 삼성전자 부스에서 차량용 콕핏에 탑승해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기대했다. SK텔레콤은 이번 CES에서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T맵'과 음원 서비스인 '플로(FLO)' 및 각종 동영상 등을 차량 기본 탑재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IVI' 시스템을 선보이며 관련 분야의 기술력을 확인시켰다.

SK텔레콤은 한국형 차세대 전기차 개발 미래 자율주행의 눈이라 평가받는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더 기술도 선보였다.

SK텔레콤은 글로벌 전자기업 파이오니아 스마트 센싱 이노베이션즈(PSSI)와 'CES 2020'에서 양사 핵심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Single Photon LiDAR(단일 광자 라이더)' 시제품을 공개했다.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더는 SK텔레콤의 1550nm(Nano Meter) 파장 단일 광자 라이더 송수신 기술과 PSSI의 '2D MEMS Mirror(초소형 정밀기계)' 스캐

닝 기술을 결합해 기존 대비 해상도와 인식률을 대폭 향상,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며 2021년 상용될 예정이다. 1550nm 파장 단일 광자 라이더 송수신 기술과 2D 초소형 정밀기계 스캐닝 기술을 결합한 것은 세계 최초이며, 이를 위해 양사는 지난해 9월부터 기존 라이더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더' 공동 개발을 진행해 왔다.

라이더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추서 물체의 거리 및 다양한 물성을 감지하고 이를 3D 영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로,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향후 다양한 분야에 널리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이 적용한 TCSPC 기술은 눈이나 비, 연기와 같은 분산된 물체와 자동차와 같은 고정된 물체를 구분할 수 있어 눈 혹은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식별해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SK텔레콤의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더는 자율주행, 교통 관제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분야뿐 아니라 보안, 사회 안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훈 기자 yes@

## 하현회 LG U+ 부회장, CES '트리플A' 행보

〈인공지능·증강현실·자율이동〉

### 삼성·파나소닉·구글 부스 찾아 AI 기반 통합 솔루션 제품 체험 현대차 '자율이동' 기술 큰 관심 5G융합 비즈니스모델 발굴 나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중인 'CES 2020'을 찾아 초저지연, 초연결의 5G 네트워크와 AI(인공지능), AR(증강현실), Autonomous mobility(자율이동)의 융합에서 이동사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섰다.



하현회(오른쪽 두 번째) LG유플러스 부회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0의 LG전자 부스에서 LG G8X ThinQ와 듀얼 스크린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하 부회장은 7일(이하 현지시간) LG전자 부스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파나소닉, 구글 부스를 연이어 방문, AI 기반 통합 솔루션 기술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인사이트를 구했다.

가장 먼저 방문한 LG전자 부스에서는 AI 기반의 안내와 서빙 로봇, 조리와 바리스타 로봇, 가상 의류 피팅 솔루션 등 공공 장소에서의 맞춤형 AI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며, AI를 기반으로 연동되는 홈 가전 기기와 모빌리티 등 확장성에 대해 세심하

게 살폈다.

하 부회장은 "AI 기반의 가전기기, 모빌리티 등이 고객의 일상을 크게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고객의 감성까지 케어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곧 경쟁력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 부스를 찾은 하 부회장은 구글 어시스턴트(음성비서)를 주축으로 가

은 고객에게 차별적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빌아이(인텔)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CES 2020'의 메인 키워드인 '자율이동' 전산업체를 찾아 기술 및 서비스 현황, 플랫폼 등을 직접 체험했다.

부품 기업에서 자율주행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성장한 모빌아이 부스에서는 자율주행 솔루션 상품(ADAS) 개발 현황과 맵핑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현대자동차와 현대차그룹 내 모빌리티 핵심 기업인 현대모비스 부스를 연이어 방문, 모빌리티 콘셉트카와 개인 비행체(PAV), 로보택시 등의 기기를 중심으로 자율이동과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하 부회장은 8일에는 지난해 국내 독점으로 도입한 Nreal사의 AR글래스 분야의 '100인치 대화면 시청', '360도 AR콘텐츠'와 모델이 착용한 가방이나 옷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AR쇼핑', 'AR게임' 등 한층 진일보한 AR서비스와 새로운 UI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yes@

## "리니지 독주 막아라" 게임업계 신작 러시

### 카운터사이드 'A3 스틸' 등 기대주

2020년 새해를 맞아 국내 게임업계가 신작 출시를 위한 막바지 담금질에 나섰다. 지난해 출시를 목표로 개발했지만 개발이 늦어진 신작까지 더해져 연초부터 다양한 게임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은 이달 중 잇따라 게임 출시와 업데이트 관련 간담회를 열고 게임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우선 넥슨은 14일 서울 강남 넥슨아레나에서 판타지 RPG '카운터사이드' 출시를 앞두고 미디어 쇼케이스를 진행한다. 카운터사이드는 넥슨이 올해 가장 먼저 선보이는 작품으로 게임 정보와 콘텐츠, 출시 일정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게임은 '클로저스' 총괄 PD를 맡았던 류규태 스튜디오 비사이드 대표가 개발을 지휘했다.

카운터사이드는 현실 세계 '노말사이드'와 반대편 세계인 '카운터사이드'의 전투를 그린 어반 판타지 RPG다. 실시간 유닛 배치를 통해 전략 게임의 묘미와 탄탄한 메인 스토리를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매력을 가진 캐릭터를 수집하는 재미를 전한다.

##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 후 고용 늘었다

#충북 충주에 있는 배관 제조 업체 A사는 2018년 스마트공장 A형(중간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생산관리시스템(MES)을 고도화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생산 공정이 개선돼 주문량을 제때 소화하게 됐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A사는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뒤 13명의 추가 고용도 이뤄졌다.

A사처럼 스마트공장 도입 뒤 일자리가 늘어난 기업이 전체 도입 기업의 절반으로 나타났다. 전체 도입 기업의 기

근로환경 개선·경쟁력 향상  
도입 기업 50% 일자리 증가

업당 평균 추가 고용은 2명이었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고용 현황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뒤 1년이 지난 중소기업 478개사의 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피보험자

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50%(239개사)에서 일자리가 늘었다. 동시에 기업당 평균 2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3단계 이상의 A형에서 일자리 증가 기업 비율이 72.1%로 가장 높았다. B형은 55.7%, C형은 45%로 구축 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유형은 5단계로 A형은 3단계 이상을 뜻한다. 기업 자부담 비중

은 40%, 정부 지원은 최대 1억 원이다. 구축 수준 1·2단계는 B형으로 기업 자부담 40%, 정부 지원은 최대 6000만 원이다. C형은 구축 수준 기초 단계로 기업 자부담이 없고, 정부 지원은 최대 2000만 원이다. C형은 소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며 간이 자동화 수준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B형과 차이가 있다.

정옥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데이터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구축 수준이 높은 기업들에서 일자리 증가 효과가 크게 발생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을 높여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더해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22일에는 넷마블이 선보이는 배틀로얄 MMORPG 'A3 스틸얼라이브'의 쇼케이스가 개최된다. 2018년 지스타에서 공개한 이후 업계에서 기대가 높은 게임이다. A3 스틸얼라이브는 2002년 출시된 PC 온라인 게임 IP를 원작으로 한다. 넷마블은 A3 스틸얼라이브 이후 '매직:파나스트라이크', '세븐나이츠2', '제2의 나라' 등 신작을 잇따라 공개할 계획이다.

엔씨소프트는 9일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리니지2M'의 첫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를 공개한다. 지난해 11월 출시돼 현재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1위에 올라 있으며, 업데이트를 통해 장기 흥행의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형제게임이라 불리는 '리니지M'까지 2위에 올라 있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독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새 주인 찾는 '7호선 편의점' 높은 임대료 논란

GS25·CU, 점포 수 선두 자리 놓고 치열한 신경전  
서울교통공 입찰서 '점포당 年1억' ... 업계 시큰둥

서울 지하철 7호선에 편의점 매물 40개가 나왔다. 출점 절벽에다 치열한 1위 경쟁까지 겹치면서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다. 5년간 최저 임대료 211억 원이라는 너무 높은 비용 때문이다. 편의점들이 점포 수 경쟁에서 수익성 위주 전략으로 선회한 만큼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7호선 수락산역, 상도역 등 40개소에 편의점 브랜드전문점 임대차 신청을 10일까지 받는다. 40개소의 총규모는 1670.29㎡, 평균 점포 규모는 41.75㎡(12.6평)이다. 임대 기간은 5년이며 전체 기간의 기초 금액은 211억7491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이 중 임대 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30%다. 낙찰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 갱신청구 시 최대 5년간 계약 갱신이 가능한 조건이다.

지난 10년간 GS25로 운영돼온 이들

점포에 대해 업계는 치열한 싸움을 예상했다. 퇴직자 창업 열풍으로 2015-2017년 사이 매해 3000-5000개씩 편의점 점포 수가 급증했다. 통상 5년 계약 시기를 고려할 때 이들 중 상당수가 내년부터 브랜드 재계약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고자 하며 간판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업계 1위 자리를 놓고 GS25와 CU의 점포 수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하철 7호선에 입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11월 GS25가 점포 수 1만3899개를 기록하며 17년 만에 CU(1만3820개)를 누르고 점포 수 선두 자리를 꿰찼다. 배경에는 지난해 4월 과거 CU가 운영하던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25곳)을 GS25가 낙찰받은 효과가 컸다.

이번에는 반대로 GS25가 지켜야 하는 입장이다. 7호선 40개를 CU가 낙찰받으면 한 번에 80개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점

대상	7호선 수락산역 711-202호 등 40개소(총1670.29㎡)
입찰방법	제한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기초금액	211억7491만2000원(5년 총액, 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5년(영업준비기간 60일 별도 부여) ※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 갱신청구 시 최대 5년 계약갱신 가능
보증금	임대보증금: 계약금액의 30% ※ 출처: 서울지하철공사

포 수 1위 자리 재탈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양사의 점포 수 차이는 79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입찰 공고가 나오자 편의점 업계는 예상외로 신중한 분위기다. A편의점 관계자는 "기초가가 높아 꼭 입찰에 나서야 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수익성 위주의 출점 전략이라 적극적으로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C사 관계자는 "비용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소극적인 자세의 배경은 매출 대비 과도한 임대료 탓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시한 지하철 7호선 매점 40곳의 최소 낙찰가는 5년간 211억7400만 원으로, 매장 한 곳당 임대료만 평균 연 1억 원(월 882만 원)이 든다. 지하철 역사 내 일반

상가의 임대료가 월 350만 원 내외인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다.

더욱이 7호선의 최근 입찰인 2018년 10월 '건대입구역 등 9개소(건대입구역~미아역)'의 최저 낙찰가 27억9900만 원에 비해서도 비싸다. 이 점포는 당시 CU가 33억8131만 원을 써내 최고가로 낙찰받았다. 점포당 연간 7514만 원(월 626만 원)을 지불하는 셈이다.

매출이 높은 것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 매출은 연평균 3억7766만 원에 불과하다. 빅5 브랜드의 경우 이보다는 높은 4억~6억 원 수준이지만 지하철 점포는 역사 운영 시간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하고, 지하라는 제약도 따라 매출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 때문에 최근에는 지하철 편의점 등 특수 상권의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지하철 9호선 입찰 경쟁 당시엔 점포 수 1위 경쟁이 치열하던 와중인데도 기존 운영사인 CU가 낮은 금액으로 응찰해 GS25가 손쉽게 사업권을 따냈다. 미니스톱은 기존에 운영하던 지하철 1-4호선 내 14개 점포의 2017년 재입찰에 아예 나서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GS25가 손쉽게 재연장에 성공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에 17년 만에 점포수 1위를 꺾은 만큼 의지도 강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하철 편의점은 홍보 효과를 제외하고는 돈이 안 되는 만큼 기존 운영사로 인테리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GS25가 그나마 적극적인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오히려 육근 PX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6월 나오는 해근 PX 260개에 관심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25 관계자는 "과도한 금액으로 무리하게 입찰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주현 기자 jooh@

오후 5시에 제공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대표 교체·해외 공략... 식품업계 '변화의 바람'

CJ제일제당·풀무원 새 CEO  
하이트진로 '동남아 드라이브'  
롯데칠성음료 가격 인하 등 변화

'보수 경영'의 대표 산업군으로 꼽혀온 식품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체재가 충분한 식품은 대표적인 저관여상품이라는 특성상 '장수상품 = 베스트셀러'인 경우가 많고 '장수 CEO'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던 업종이지만 최근 들어 "변해야 산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산업이 성장 정체를 맞은 데다 소비 트렌드가 지 빠르게 바뀌며 불확실성이 커지자 업계가 생존을 위해 과감한 변화와 유연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

업계 1위 CJ제일제당은 연말 그룹 인사를 통해 강신호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이재현 회장의 측근이자 그룹 내 대표적인 전략동으로 꼽혔던 신현재 전 대표는 실적 약화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2017년 말 취임한 신 전 대표의 재임기간은 약 2년이었는데, 전임자인 김철하 대표가 약 7년 동안 회사를 이끌었음을 감안하면 그룹의 신속한 결정을 엿볼 수 있다.

강신호 대표 체제 출범을 맞아 조직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조직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던 롯데

CJ제일제당	강신호 대표 체제 전환 조직 개편 가능성
롯데칠성음료	맥주 클라우드·피츠 출고가 인하
하이트진로	필리핀 현지 법인 설립 동남아 공략 가속화
풀무원	비식품 사업 확대 위해 외부 영입
빙그레	'다름' 전략 채택하고 사업 다각화 속도

칠성음료는 연초부터 주류 종량제 시행에 맞춰 국산맥주 출고가 인하를 결정했다. '클라우드'는 캔맥주 500ml 기준 1880원에서 1565원으로, '피츠'는 캔맥주 500ml 기준 1690원에서 1467원으로 가격이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그간 공동대표 체제에서 연 말 인사를 통해 '원톱' 대표가 된 이영구 대표가 취임 후 내수 시장에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이트진로는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에 이어 필리핀 현지 공략에 나서며 '동남아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

하이트진로는 올 들어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해외 법인 '하이트진로 필리핀'을 설립하고 현지 공략을 시작한다. 인구 1억여 명(세계 13위)의 필리핀은 2018년 GDP 성장 6.8%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총괄 상무는 "소주의 세계화 선포 후 동남아 시

장에서 현지화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필리핀 법인 설립을 통해 국 주류의 위상을 키워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주회사 전환으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풀무원은 '새로운 피' 수혈을 통해 사업 확대에 나선다. 건강기능식품과 스낵케아 방문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풀무원생활건강은 2일 신입 대표이사에 황진선 대표를 선임했다. 황 대표는 P&G와 코웨이 등을 거치며 두각을 나타낸 '화장품 톱'으로 평가된다.

황 대표 영입을 통해 '비식품'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효율 풀무원 총괄대표는 사업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전자 매출 3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빙과 사업 정체로 신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빙그레는 올해 전략으로 '다름'을 정했다. 전장원 빙그레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Better & Different" 전략을 바탕으로 건강 지향적 비즈니스를 추구하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며 "온라인 매출 확대와 건강기능식품 등 신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포화 상태인 내수 시장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퇴보를 의미한다"며 "특히 제품 트렌드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변화에 적응하고 각 회사들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생존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명절 피로 풀어줄 소형 안마기 이마트가 설 명절을 2주 앞두고 소형 안마기 판매에 나섰다. 출시 한 달 만에 동났던 '일렉트로맨 베이직 목어깨 마사지기(2만9800원)'는 6000대 준비했고, '일렉트로맨 종아리발 마사지기(17만8000원)', '일렉트로맨 발 마사지기(7만9800원)'도 각각 4000대가량 준비했다. 시중 유사제품 대비 최대 3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사진제공 이마트

## 롯데백 "반려동물 설빔 준비하세요"

펫팸족 전용 쿠키클래스 등 준비

롯데백화점이 명절맞이 이색 반려동물 용품을 선보인다.

2017년부터 '반려동물 전용 선물세트'를 선보인 롯데백화점은 매년 준비된 물량을 완판할 만큼 인기가 좋아 올해도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명절 선물을 준비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각종 보온 상품을 선보인다. 핫팩 주머니가 들어 있는 에코퍼(eco fur) 방식으로 보온성을 강조한 '유모차 커버 세트(유모차 별도)'를 30만 원에, 반려동물 외투인 '덤블링 케이프(망토)'를 9만8000원에 판매한다.

또 강남점 분관 1층 '집사' 매장에서는 27일까지 '반려동물 맞춤 한복'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저고리와 치마, 배자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한복과 머리핀, 노리개 등의 액세서리를 선보인다. '모니카 맞춤 한복'을 20만 원대에 판매하고, 딱딱이 단추



롯데백화점 강남점 1층 '집사' 매장.

로 손쉽게 입힐 수 있는 '이츠독 찬솔왕자 한복'을 8만9000원에 판매한다.

펫팸족을 위한 명절맞이 이벤트도 진행한다. 강남점 분관 1층 집사 매장에서 18일에 '사람과 강아지가 함께 먹는 만도국 만들기 쿠키클래스'를, 18일과 19일 이틀간 '설날맞이 케이프(망토)·족두리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해 반려동물과 함께 설 명절을 즐길 수 있다. 집사 매장에서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마키마우스 모양 반려동물 그릇'을 증정한다. 박미선 기자 only@

## '日맥주 빈자리' 국산 수제맥주가 채웠다

CU, 지난달 매출 전년비 4배 경증... '3캔 9900원' 행사 확대

일본 불매운동으로 일본 맥주 수요가 뜸해진 대신 국산 수제맥주가 그 빈자리를 채우며 성장 중이다.

CU에서 수제맥주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40%대의 신장률을 보였으나 일본 맥주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하반기부터 7월 159.6%, 12월 306.8%로 전년 대비 매출이 경증 뛰었다. 국산 맥주에서 차지하는

수제맥주의 매출 비중도 2018년 1.9%에서 2019년 5.6%로 큰 폭으로 올랐다.

수제맥주의 이러한 인기는 올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종량제 전환으로 인해 그동안 대량 생산이 힘들어 생산 단가가 높았던 수제맥주도 차츰 가격경쟁력을 갖추므로써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CU는 수제맥주 1캔 3500원 균일가, 3캔 9900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상품은 퇴근길 필스너, 강한IPA, 맥아더 엠베일, 흥청망청 비엔나라거, 흑당 밀키 스타우트, 인생에일 등 총 12종이다.

CU 음용식품팀 이승택 MD는 "주류 과세체계의 개편으로 국산 수제맥주가 다양한 맛과 종류의 신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며 "수제맥주의 라인업이 더욱 늘어나고 가격도 점차 낮아지는 만큼 관련 시장도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제2 한미약품’ 기대... K-바이오, 기술수출의 장 ‘출격’

## 닷새 앞으로 다가온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세계 1500여 제약·바이오기업 관계자 모여 파트너십 논의  
메인룸 입성하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직접 비전 발표  
한미·대웅·LG화학 등 파이프라인 공개하고 비즈니스 미팅

전 세계 1500여 개 제약·바이오기업과 투자자가 모이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글로벌 최대 규모의 기술수출과 파트너십의 장으로 꼽히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K-바이오가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기대를 모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이 13일부터 16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참가한다. 우리 기업들은 주요 연구·개발(R&D) 현황을 발표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할 전망이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입성한 그랜드볼룸에는 셀트리온이 합류한다. 그랜드볼룸은 메인 트랙 중 가장 큰 발표회장으로 JP모건의 초청을 받아 참가한 기업 중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기업이 배정된다.

셀트리온은 올해도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직접 나선다. 지난해 이곳에서 차세대 파이프라인과 직관 전략을 밝혔던 서 회장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 마케팅 전략, 중장기 비전 등을 공개한다.

김태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아직 참석 여부를 고민 중이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 따른 부담 탓이다. 지난해 김 사장은 의약품유통 생산(CMO) 수주 현황과 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회계처리를 IFRS 회계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권세창 한미약품 사장과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이 발표 단상에 오른다. 한미약품은 비만·당뇨, 항암, 면역질환, 희소질환 혁신신약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현황을 임상 데이터 위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스프라진’, PRS 섬유증 치료제 ‘DWN12088’, 한올바이오파마와 공동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 등을 중심으로 R&D 현황과 방향성을 밝힌다.

LG화학은 손지용 생명과학사업부장이 대사질환과 항암면역질환 등 신약후보물질 파이프라인과 올해 사업전략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유망 신약후보물질 기술 도입을 위한 미팅을 계획하고 있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를 통해 비소세포암 치료제 ‘레이저티닙’ 기술수출 성과를 냈던 유한양행은 추가적인 오픈 이

노베이션 기회를 탐색한다. JW중외제약은 이미 기술수출에 성공해 가치를 인정받은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JW1601’과 통풍치료제 ‘URC102’의 추가 기술제휴를 모색한다.

주요 제약사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바이오기업들도 참가해 눈길을 끌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기술수출 실현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적극적인 비즈니스 미팅에 돌입한다.

2년 연속 참가하는 이수앤지스는 1대1 미팅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발굴에 나선다. 항암 항체 신약 ‘ISU104’,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 치료제 ‘솔라리스’ 바이오시밀러 ‘ISU305’, 고셔병 치료제 ‘애브서틴’ 등을 소개하고, 차별화된 신약 개발 전략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항암 신약 ‘리보세라’를 개발 중인 에이치엘비도 이번 콘퍼런스에 초청받았다. 미국 자회사 엘레바의 알렉스 김 대표와 케이트 맥킨리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참석한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비즈니스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콘퍼런스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조율이 필요하지만 그중 한 단계 정도는 행사 직후 구체적인 논의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헬릭스미스는 ‘VM202’의 본격적인 기술수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VM202는 1분기 내 당뇨병성신경병증 후속 임상3상을 시작하며, 루게릭병 및 사르코마-마리-투스병과 같은 희소질환에 대한 적응증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셀리버리는 주요 파이프라인과 원천 플랫폼기술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 TSDT’의 기술수출 협상을 위한 연속 미팅을 갖는다. 다케다를 비롯한 10여 곳의 빅파마들과 1대1 논의를 앞두고 있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기술수출 타진은 물론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임상 및 마케팅 파트너를 모색하는 최대 시장”이라며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의 사례처럼 짝꿍을 터뜨릴 기업이 나올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TV에 게재됐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참가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 출처: 각사

기업	주요 내용
셀트리온	주요 파이프라인·마케팅 전략 메인 발표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사업 목표·중장기 사업 계획 메인 발표
LG화학	대사질환·항암면역질환 등 신약후보물질 발표
한미약품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 중심 발표
대웅제약	나보타·펙스프라진·HL036 등 중점 R&D 방향 발표
유한양행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링 등 논의
JW중외제약	아토피피부염치료제·통풍치료제 추가 기술수출 논의
휴엘	글로벌 성장 비전·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발표
에이치엘비	글로벌 제약사들과 비즈니스 논의
헬릭스미스	VM202 기술수출 논의
이수앤지스	ISU104 등 주요 파이프라인 소개, 기술협력 모색
셀리버리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 TSDT 기술수출 논의
에이비엘바이오	BBB 서를 기술 이중항체 ABL301 기술수출 논의
일테오젠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ALT-B4 기술수출 논의
바이오슬루션	카티라이프 소개, 글로벌 기판투자자와 파트너십 모색

## 이니바이오, 임상·유통 전 과정 中 현지회사 맞손

국내 보툴리눔독신(일명 보톡스) 후 발주자인 이니바이오가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보톡스 시장에 진출한다.

현지 임상 3상 후 시판허가를 제출하는 기존 방식과 다른 현지 제약사와 손잡고 임상(1~3상) 및 판매까지 진행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 중국 진출이 한층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이니바이오에 따르면 2017년 12월 설립된 후 10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 제약사인 산둥부창제약 그룹과 자사의 보툴리눔독신 제제 ‘INI 101’에 대한 독점 판매 및 현지 임상에 대한 권리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NI 101’의 1/2상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시점보다 훨씬 앞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부창제약은 현지에서 ‘INI 101’에 대한 모든 임상절차 및 비용, 판매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니바이오는 중국 내 민간 제약 그룹 업계 2위(연매출 약 2조 3000억 원)이자 약 2000여 개의 직영 영업점을 보유한 부창제약과의 시너지를 통해 앞으로 더 치열해질 중국 보톡스 시장 선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자국 보톡스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견제하며 시장의 문을 걸어 잠근 상황이다. 중국 시장에 첫 도전장을 내밀었던 메디톡스의 경우 2년 가까이 중국 당국의 판매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어 뒤따랐던 휴엘, 대웅제약, 휴온스 등의 판매 허가 가능성도 미지수다.

이니바이오 관계자는 “중국 내 자국 보톡스 기업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며 한국 제품에 대한 견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INI 101’은 국내 보톡스 제제이지만 중국 기업이 현지에서 모든 임상과 판매를 맡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니바이오는 글로벌 보톡스 시장을 목표로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임상을 진행하며 파이프라인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니바이오 관계자는 “1월 중 중국 임상을 시작하는 동시에 중국은 2024년 승인 완료를 목표로 임상 진행을 위한 정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필러, 메조테라피 제품 및 약물전달시스템(DDS)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 제품 공급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 개발로 더 많은 국가별 파트너와 사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일동제약으로부터 40억 원의 투자를 받은 이니바이오는 현재 연구개발(김정세 대표)과 경영관리(이기세 대표) 부문에 대한 각각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이다. 회사는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부천 내 FDA(미국 식품의약국)와 EMA(유럽의약품청) 승인 가능 시설 및 스마트 모듈형 팩토리를 구축한 상태다.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회사는 연평균 약 300만 바이알(Vials, 약병 기준) 생산이 가능하며, 향후 약 3배 이상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 피피씨코리아, 바이오센텍에 지분 투자

### 의약품 임상 개발 공동 마케팅

아시아지역 임상시험수탁기관(CRO) 피피씨코리아는 생동성시험 분석기관 바이오센텍과 의약품 임상 개발을 위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피피씨코리아가 바이오센텍에 투자하면서 양사는 전략적 제휴 협약을 맺었다.

회사 관계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객사들에게 초기 및 후기 임상시험 전반에 걸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모니터링 CRO 서비스 업무뿐만 아니라, 약물동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과 단백질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춰



의약품 임상개발에 필요한 솔루션을 모두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피씨코리아는 PPC그룹의 한국 지사로 2010년 설립돼 합성약품의 임상연구뿐 아니라, 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항암제를 포함한 혁신적인 의약품의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 대웅제약, 동아박타와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 조인트벤처 설립 파트너십 계약

대웅제약이 영국계 바이오텍 기업 아박타(Avacta)와 신규 오픈콜라베이션 사업을 진행한다.

대웅제약은 단백질 치료제 플랫폼 개발 회사 아박타와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세포치료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조인트벤처의 대표이사는 대웅제약의 전승호 사장이 맡는다.

이 회사는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 기능강화 줄기세포 연구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중간엽 줄기세포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그리고 아박타는 특정 타겟의 특이적 아피머(Affimer®)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조인트벤처에 각각 부여할 계획이다.

아박타가 보유하고 있는 아피머 기술은

체내 자연 발생 단백질(Stefin A)을 기반으로 한 단백질 치료제 플랫폼이다. 기존 항체의 약 10분의 1 크기로 조직 침투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대웅제약의 줄기세포 플랫폼(DW-MSCT)은 배아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역분화줄기세포)로부터 유래된 중간엽 줄기세포다. 배양 횟수에 제한이 있는 기존 성체 조직 유래 중간엽줄기세포와 달리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유전자를 줄기세포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배양이 필요한데, DW-MSCT는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전승호 사장은 “이번 조인트벤처 설립은 대웅제약이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 온 오픈콜라베이션 사업의 획기적인 결과물”이라며, “아박타의 아피머 기술과 대웅제약의 줄기세포 기술을 융합해 기존의 항체 기반 요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비항체 단백질 형식의 치료 패러다임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부광약품 ‘주주 가치 제고’

### 250억 자사주 취득·소각

부광약품이 적극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펼친다.

부광약품은 자기주식 191만6000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전일 종가(1만3050원) 기준 총 250억380만 원 규모로 4월 7일까지 장내매수할 예정이다. 취득한 주식은 전량 소각한다.

이번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결정은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이다. 회사 측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이번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각 주식 종류와 수는 자기주식 취득완료 수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소각 수량이 확정되는 날 정정공시할 예정이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6월에도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 주가 부양을 통한 주주의 실현에 나선 바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 ‘美·이란 충돌’ 증시 휘청... “악영향 오래 안 갈 듯”

이란 보복전에 투자심리 위축  
코스피 24P 하락한 2151.31  
전문가 “단기 이슈에 머무를 것”  
삼성전자 호실적도 긍정적 평가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의 분쟁 소식에 1% 넘게 하락 마감했다. 8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 거래일보다 각각 24.23포인트(1.11%), 22.50포인트(3.39%) 내린 2151.31과 640.94를 가리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국내 주식 시장이 1% 넘게 급락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적 이슈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향후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11% (24.23포인트) 하락한 2151.31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130선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도 3.39% (22.50포인트) 급락해 640.94에 장을 끝냈다.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전면 보복전에 나서면서 투

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 전면전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며 단기

이슈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란이 미국 공격에 대해 ‘미래적인 조

치’라며 미국이 공격을 안 한다면 자신들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전쟁이 전면적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양국의 긴장관계는 지속될 수 있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만 이란 이슈가 시장을 어렵게 할 거라고 보진 않는데 양국이 더 이상 갈등을 격화시키지 않는다면 시장 상황은 좋은 편”이라며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고 있어 회복세에 접어드는 단계”라고 분석했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란은 이미 국제 석유시장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있는데 제대로 수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만 가능성은 낮은데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공급할 가능성도 있고 확전될 가능

성도 높지 않다”며 “이란에서 미국 본토에 대해 공격을 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잡음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삼성전자의 호실적도 주식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윤지호 센터장은 이어 “중동 이슈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을 흔들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며 “매크로 이슈 환경을 볼 게 아니라 오늘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처럼 실적은 좋은 기업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김유겸 센터장은 “이번 이슈를 제외하고 본다면 미·중 무역협약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경기 회복에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며 “상반기 전체적인 흐름을 좋게 예측하는데 15일 이후 단기적인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이다원 기자 leedw@

## 外人, 반도체 매수 71%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업황 ‘바닥 찍었다’ 기대감 커져  
16거래일간 2.5兆 순매수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경신  
SK하이닉스도 최고 기록 작성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다.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집중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는 16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총 2조5167억9014만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 중 삼성전자(1조1520억8278만 원), SK하이닉스(6433억4643만 원) 두 종목에만 전체 순매수 금액의 71.34%가 몰렸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매수의 절반 이상이 전기·전자 업종”이라며 “지난해 연말 외국인 매도 규

망은 꾸준히 제시돼 왔다. 이에 부응하듯 삼성전자는 이날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59조 원, 영업이익이 7조1000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0.46%, 34.26%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6조5000억 원)를 크게 웃돌았다.

실적 개선과 매수세가 몰리면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노동길 연구원은 “시장 관심은 기본적으로 올해 실적에 쏠려있는데,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좋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며 “1~2분기 반도체 반등을 점치는 데다 최근 재고 수요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주주 매수세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운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낸드(NAND) 가격 상승에 이어 1분기 디램(DRAM)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작년 수요 공백으로 모든 반도체 공급업체들이 감소 및 비메모리 전환투자를 통해 시황에 대응했기 때문에 올해 수요 여건은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 주주에게 손 벌리는 ‘적자기업’

유증 통해 차입금 상환 가능성 커  
공시 이후 주가 하락... 투자 주의

적자기업들이 위기 탈출을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 카드를 꺼내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증자를 통해 조달한 금액을 차입금 상환에 쓴다는 입장이다. 통상 시장에서 주주배정 증자는 기관 자금 유출에 실패해 주주의 손을 벌리는 것으로 인식되는 만큼, 공시 이후 급격한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이노인스트루먼트, 모트렉스, 지스마트글로벌 등의 기업이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노인스트루먼트와 모트렉스는 주주배정 후 실권 주 일반공모 방식이며, 지스마트글로벌은 주주우선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 기업은 모두 실적 부진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외부자금을 통한 재무 개선이 절실한 상태다. 지스마트글로벌은 주력 사업인 스마트글라스(투명전광유리) 시장이 침체하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2017년 1000억 원에 가까웠던 매출액은 2018년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지난해 3분기엔 누적 매출액 79억 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도 2017년 214억 원으로 승승장구하다 2018년 91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지난해 3분기까지도 95억 원 가량의 영업손실이 난 상태다.

지난해 연말 370억 원, 110억 원 규모의 유증을 결정한 통신장비업체 이노인스트루먼트와 자동차용 AVN(오디오·비디오·

내비게이션) 전문업체 모트렉스도 지난해 3분기 기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이노인스트루먼트는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속해서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첫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3분기에는 78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더 커졌다. 투자자 사이에선 증자 이후 수급과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증자 목적이 기업 성장과 관련된 것이 아닌 차입금 상환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스마트글로벌의 경우 296억 원 규모의 유증 결정과 함께 10대 1 비율 감자 소식을 별도로 공시했다. 2월 중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감자 안이 승인된다면 전제하에 4월 무상감자, 5월 청약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주식은 1300만 주로, 감자 이후 총 주식 수(1133만9394주)보다 큰 규모다. 기존 주주가치가 희석된다는 점에서 투자자 사이에선 악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증자대금 전부를 차입금 상환에 쓴다고 밝혀 기업 성장 기대감은 줄고 유동성 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유증 결정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요동쳤다. 이노인스트루먼트는 공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3일 28% 넘게 주가가 하락하며 2200원대로 가라앉았다. 지스마트글로벌은 감자 및 유증 소식을 밝힌 다음 날 장 초반부터 하락가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고, 모트렉스도 16%가량 내려 현재까지도 급감한 주가 근처를 횡보 중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 ‘리니지2M 흥행’ 엔씨소프트, 연일 최고가 경신

창사 후 영업의 첫 1兆 돌파 기대  
外人 5거래일간 580억 순매수  
주가 60만4000원까지 올라  
대차잔고비율은 4%대로 ‘뚝’



엔씨소프트가 리니지2M의 흥행 효과로 연일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다. 올해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을 것이라 전망도 나오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8일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장중 60만40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또 다시 경신했다. 3일(종가 56만5000원)부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란과 미국의 무역 충돌 가능성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엔씨소프트 주가는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5거래일 동안 580억 원어치 순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세

용자들이 늘면서 매출과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목표 주가를 기존 70만 원에서 91만 원으로 크게 높였다. 김창권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리니지2M의 확산한 시장 지위와 함께 리니지2M이 온기로 반영되는 1분기에 실적 기대감이 높다”면서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게임기업 중에서 압도적인 투자 매력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영증권(1조87억 원)과 이베스트투자증권(1조273억 원) 등은 엔씨소프트가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용정 신영증권 연구원은 “신작 리니지2M의 흥행 성과가 양호하고 기존 리니지2M과의 카니발라이제이션도 시장 우려 대비 크지 않은 수준으로 4분기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향후 리니지2M 해외 매출이 더해지며 주가의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빗썸 지수 (2020년 1월 8일 17:00, KST)

전일 대비 534,000원 (5.9%▲) | 6개월 대비 -3,182,452원 (25.0%▼)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80,500	3,900 (1.4%▲)	모네로	66,800	400 (0.6%▲)
리플	245	-4 (1.6%▼)	비트코인골드	6,885	215 (3.2%▲)
라이트코인	54,850	1,100 (5.4%▲)	이더리움 클래식	5,645	70 (1.3%▲)
대시	62,600	1,900 (8.8%▲)	퀀텀	1,985	24 (1.2%▲)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규제 무풍지대?... 개포동 아파트 매매 신고가 '행진'

(12·16 부동산 대책)



올해 초 분양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수요자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5대 1, 최고 28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사진제공 GS건설

신축 단지 입주로 신혼부촌 기대 매수 문의 이어지며 가격 치솟아 청약 당첨되면 최대 10억 차이 프레지던스 자이 경쟁률 '283대 1'

“개포동 말고는 강남에서 새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서는 곳은 앞으로 20년간 없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세졌지만 개포동 아파트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J공인 관계자)

세금·대출·청약 규제를 총망라한 12·16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개포동 아파트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신고가 거래 사례도 적지 않다.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도 뜨겁다. 강남에서는 찾기 힘든 대규모 새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개포동이 강남의 신혼 강자로 떠오른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입주한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옛 개포주공4단지) 전용면적 126㎡는 지난해 23일 33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직전 매매가는 25억2000만 원으로, 시세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12·16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같은 아파트 전용 84㎡도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24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24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신축 아파트뿐만이 아니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등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호가가 2억~3억 원씩 떨어질 때도 개포주공1단지 전용 50㎡는 지난해 29일 25억5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개포동 H공인 관계자는 “예전에는 개포동이 강남권에서 비선호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바뀌었다”며 “강남에서 이만한 신축 아파트 단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이후에도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 단지도 인기다. 3일 분양한 개포동 '프레지던스 자이'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최고 28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평균 경쟁률은 65대 1을 기록했다. 232가구 모집에 1만 5082명이 몰린 것이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4750만 원으로 타입별로 7억3100만~21억8700만 원에 책정됐다. 전용 39㎡만 분양가가 7억3100만~8억3300만 원으로 9억 원 미만이다. 전용 39㎡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구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것이

다. 전용 45㎡부터는 시세 15억 원 이상으로 잔금 대출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것은 청약에 당첨만 되면 최대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현재 개포지구 아파트 대부분이 재건축을 진행 중이거나 입주를 완료했다. 래미안 블레스티지뿐 아니라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옛 일원현대아파트)과 '디에이지 아너힐스' (옛 개포주공3단지)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도 올해 준공된다. 이번에 분양에 나선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는 2023년, 디에이지 자이 개포와 디에이지 포레스트는 내년 준공될 예정이다. 앞으로 2~3년 후면 대규모 신혼 주거단지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포동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개포동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12·16 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이번 대책 발표 이후 강남지역에서의 수요 위축은 기존 정책 발표 당시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직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12·16대책 전후 실거래가 변화 (단위: 만 원)



##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 1월호 발매

**COVER STORY**  
웰컴 에이징

- PART1. 나이 들의 미학 - 늙음과 낡은 한 획 차이
- PART2. 나이만큼 아름다워지는 삶 - 나이 들의 품격, '어르신'이여에게 듣는다
- PART3. 노화의 선물 - 백발이 빛 발하는 나이
- PART4. 나이가 아닌 품격을 먹다 - 스타일 나는 인생
- PART5. 웰에이징 설명서 - 나이 먹으면 좀 어떤
- PART6. 우리들의 특권 - 화려한 VIP '오명세대'를 위하여!!
- PART7. '2019 제1회 KMA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수상자 - 제2의 멋진 인생을 열다

“직장이 주어진 회사를 만들어서 행복하다”  
5세 박종규 씨가 통창한 인생과 경영 해법

“있는 그대로 자라나게 사는 것이 중년의 멋”  
백우 홍요섭, 품은 길을 걷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말하다

불가짜이 파범버  
오명난전이 되다라고  
올라가 영인 김대근

**더불어 숲**  
하늘 아래 처음 열린 길

**귀촌 귀농으로 얻은 경제, 그리고 긍정의 힘**  
그녀는 오랫동안 암 투병을 했다. 음산한 죽움의 공기를 숨 쉬며 차갑하게 견뎌왔을 거다. 알고 보면 하등에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게 죽음이라는 고상한 소신도 있지만,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 빈버들 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능이지 않은가. 한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했었다는 이윤경55 씨는 불굴의 의지로 결국은 10여 년 만에 암을 물리쳤다. 투병 후반기의 귀농이 일종의 모약이었다.

**투어 가이드**  
중세와 현대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불의 도시 '바쿠'

신과 신화, 인간들의 이야기가 풍성한 코카스스 3국씩 첫 번째 여행지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Baku)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첫 여행지가 됐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황산화 성분 가득, 카키오넵스 활용 레시피

**프로 골퍼 김용준 칼럼**  
김용준  
돌이오라  
돌 왔손이여

**항공해 칼럼**  
진수상한 없어도 입맛 절로 나는 새끼기와 우거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스스로 미혹하게 물어낸 해답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부족한 재주로 나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통찰 수도 있다. 여러분의 울굴은 지쳐도 기뻐한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기존안	개정안
전세대출 취급 - 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 수 확인 후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연장 제한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금융위 “전세대출 회수, 이달 내 시행”

9억 초과 주택 매입·2주택자 대상 보증기관 약관 개정 작업 추진 중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2주택을 보유한 차주(돈을 빌려 쓴 이)의 대출을 회수하는 규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의 신규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이달 도입하고자 관련 시스템을 현재 준비 중이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의 주택 보유 수가 2주택 이상인 것을 확인하면 대출 보증 만기 연장만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대출 자체를 회수하기로 규제 강도를 높인 것이다.

금융위는 해당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전세보증을 취급하는 공공기관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약관과 내규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대출회수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주택 보유 확인 후 대출을 회수하는 것이 규제 핵심이기 때문에 오류 없는 시스템 운용이 중요하다. 시스템 구축과 약관·내규 개정 절차로 규제 시행 시기가 다음 달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금융위는 작업 속도를 올려 계획대로 이달부

터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과 함께 시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준비하는 대로 이달 중에 (규제 시행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2월로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도가 당분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는 이유에서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은행 약관이 바뀌지 않았지만 관련 문의는 계속 받고 있다”며 “은행 약관을 바꾸고 시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대출 회수 조치를 수요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회수 규제와 관련해 소급적용 없이 시행 당일부터 해당자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전세대출을 무조건 받는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전세계약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며 “규제를 피하려고 필요 없는 전세를 얻어 대출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령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5에 게재됐습니다

#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와르르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

### 글 쓰는 순서

- ①지능화되는 신종 금융범죄
- ②서민 속이는 교묘한 사기꾼들
- ③멈추지 않는 피해자의 눈물
- ④'서민다중피해' 주시하는 검찰

주택조합 사기 등 주택 관련 범죄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한순간에 무너트리고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수법으로 꼽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주택조합 사기는 조합장 등 임직원이 사업시행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조합 간부들이 사기 대출, 공금 횡령과 같은 운영상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은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고,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다.

지난해 검찰은 실체가 없는 업체에 사업권 대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에 3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 조합 임원들 공금 횡령 대표적

### 용역 중복 계약 후 돈 빼돌리고

### 조합 설립 속여 분담금 챙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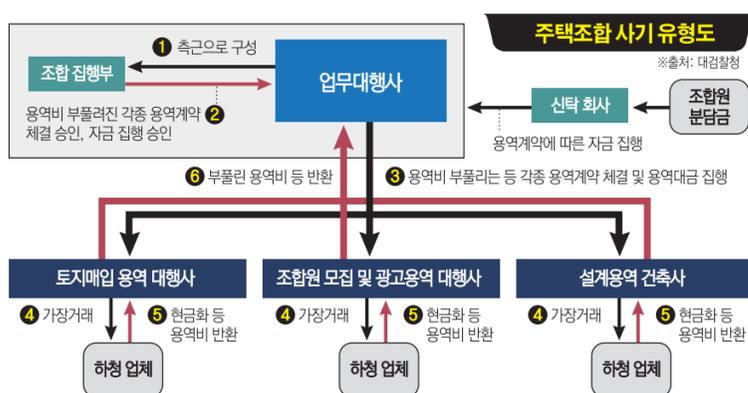
### 전세 보증금 가로챌 증개사도

대표 A 씨 등을 기소했다.

A 씨 등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주도하면서 조합 집행부를 측근으로 구성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필요 없는 용역을 중복으로 체결하게 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맺은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또 토지매입 과정에서 저가로 매수한 토지를 조합에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자금추적과 재산조사를 통해 불법수익 215억 원 상당을 추정 보전하고, A 씨와 조합장, 대표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손해액만 226억 원 이상으로, 재판부는 실제 발생한 손해는 더 클 것으로 봤다. 특히 A 씨는 이를



통해 160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의 위법성,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9년, 조합원모집 대행사 대표 B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 4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조합 설립이 불가능한데 이를 속이고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123억 원을 챙긴 사례도 있다. 업무대행사 대표 C 씨 등은 조합원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업부지 중

약 92%가 확보돼 조합 설립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 홍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조합원 분담금 등을 받아냈다.

그러나 애초부터 사업부지 중 30% 이상이 국·공유지, 사업부지 내에 도시계획 도로가 포함돼 있어 조합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80% 이상 사용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 C 씨 등은 임시 임원총회 회의록 등을 위조해 돈을 빼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으로 내 집 마련의 기대에 부풀어 있는 무

주택자 서민들이 각기 2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당했다.

검찰은 춘천지검 수사와 지휘를 통해 관계자 소환조사 57회, 계좌추적, 관계기관 자문 등 광범위한 증거 수집 후 C 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9월 C 씨는 징역 10년, 업무대행사 상무 D 씨는 징역 5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임대인 명의의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60억 원을 빼돌린 약덕 공인 중개사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만을 위임받은 이들은 162건의 위조 범행을 통해 117명의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62명의 임대인에게 3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검찰은 수사지휘 단계부터 피해재산 보전을 위한 재산 추적을 진행해 오피스텔, 자동차,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등 범죄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활용해 추정 보전하고, 재산상 손해를 본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명령제도를 안내하는 등 피해보전 조치를 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 '수억 뒷돈' 조현범 사장 형제 재판 시작

### 조 사장 "입장 밝히기 어려워"

### 형 조현식 부회장은 혐의 인정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사장과 친형 조현식 한국엔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사장과 불구속기소된 조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사장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가 늦어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전 조 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반면 조 부회장 측은 "혐의를 인정하

고 선처를 구한다"고 했다. 조 부회장 역시 "인정한다"고 짧게 말했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 원가량의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다.

조 사장은 2008년 5월~2017년 11월 한국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회사자금 총 2억6300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08년 4월~2018년 6월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6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차명계좌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조 사장이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의 매형과 유혹 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에 넣어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구세청 조사4국은 2018년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시행해 증여세 포탈 등 혐의를 잡고 지난해 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 사장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명계좌 여러 개를 발견하고 개인 비리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구속했다. 탈세 혐의는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조 사장은 조양대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지주회사 격인 한국엔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2001년에는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44) 씨와 결혼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ETV에 게재했습니다



이틀째 장대비가 내린 8일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장의 물바다. 산천어축제 주최 측은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축제 개막을 잠정 연기했다. 연합뉴스

## '여의나루~동작' 한강길, 걷기좋은 곳 탈바꿈

### 설계 공모작 선정... 내년 6월 준공

좁고 어둡고 낙후됐던 한강대교 남단(노들섬-노량진) 여의나루역~동작역 5.6km 한강 수변길을 보행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나루역~한강유람선 선착장 사이 한강시민공원 보행로는 기존의 데크와 연결되는 보행로와 전망대가 신설돼 한강을 더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다.

셋강 생태거점엔 시민들이 걷다 쉬어가면서 한강의 조류서식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벤치 등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맞닿아 있어 보행자가 걷기 위험했던 노량대교 인근 아파트 단지엔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벽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인다.

기존에 어두웠던 올림픽대로 노량대교 하부공간엔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낙후된 한강대교 남단 수변공간을 재생해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



를 조성하기 위한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한강코드'를 선정했다.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6월까지 설계용역 후 7월 착공해 2021년 6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심사위원회는 "한강코드"는 물가의 특성을 수용한 디자인이면서, 물과 수직으로 만나는 조경의 여러 전략이 디자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우수한 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가 조성되면 기존의 대규모 시민공원으로 조성된 한강공원에서와는 다르게 다양하게 한강의 풍경을 볼 수 있다"며 "자연생태 숲과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지난해 9월 개장한 '노들섬'과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최저임금 고시, 기업 자유 침해 아냐"

## 檢, MB 징역 23년 구형

### 현재 "근로자 안정 보장 위한 것"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중소기업연합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현재 판단이 나왔다.

현재는 중소기업연합회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7월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연합회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규정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현재는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산권 침해, 경제질서 위배 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는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의한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현실적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제한되는 사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적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노동 경제지표의 개선 등 효과는 보다 장기적으로 검증돼야 할 문제이나 정책효과에 관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검찰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자신)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 벌금 320억 원을 선고하고 163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요청한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160억 원, 횡령은 350억 원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15년이라는 원심의 선고형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가볍고, 다른 사건과 비교해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노력하는 엄마, 아이에도 의미... 워킹맘 당당해지길”

**W 기획 인터뷰** 조 순 옥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조순옥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이 8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별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고이란 기자 photoeran@

‘된다 된다 나는 된다’

조순옥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상무)이 즐겨 읽는 책의 제목이다. 입행 20여 년 만에 지점장에 오르고, 재작년 최초의 여성 준법감시인 타이틀을 딸 때도 이 책을 곁에 뒀다. 글귀 하나하나를 가슴에 아로새기며, 그는 지금도 ‘나는 할 수 있다’를 되뇌인다. 긍정은 조 상무의 또 다른 자아(自我)다.

◇“섬세한 카리스마, 여성의 가장 큰 강점” = 조 상무는 1988년 KB국민은행에 입행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행원은 입출금 등 단순 업무에 배치됐다. 단지 여자란 이유만으로 남성보다 호봉도 낮았다. 여행원 승진에 발목을 잡던 ‘전환 고시’는 그가 입행하기 직전 사라졌지만, 조직 내 깊숙이 자리잡은 선입견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은행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남녀 차별이 심했어요. 그럴수록 더 욕심을 부렸죠. 결과를 떠나 난 최선을 다했어’라는 자기만족을 가장 경계했어요. 자연스레 프로 의식이 생기더군요.”

견고한 금융권 유리천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000년 후반부터다. 여성 임원을 배출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경영진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차별을 이겨냈는데 안주하지 않았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만의 경쟁력’을 찾았다. 답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한 리더십’이었다.

“임원에 오르면 조직을 아우를 힘이 있어야 해요. 여성이 지닌 유연한 사고와 부드러운, 공감 능력은 큰 자산이 됩니다. 고객을 대할 때도 똑같아요. 20여 년 전 처음 현장에 나갈 때부터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낮은 자세로 임하니 그분들도 진심을 알아주시더라고요. 지점장 시절 연을 맺은 고객과 지금도 연락하며 지냅니다.”

◇“워킹맘, 죄책감 없이 당당해라” = 조 상무에게는 두 명의 딸 있다. 지금은 장성

최선 다했어 자기만족 경계 여성만의 섬세한 리더십 차별 이기는 경쟁력으로

된다 나는 된다...

스스로 긍정적인 마인드 품고

장기적 안목 가지려 노력

다음 자리 생각하며 일해야



해 엄마의 손을 타지 않을 나이지만, 임신과 육아는 그에게도 큰 고난이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회사에 전한 건 임신 6개월 때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란 편견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일과 가정 모두를 일궈내겠다는 욕심이 조 상무를 자극했다. 동료들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출산과 함께 퇴사하는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을 더 다독였다. 가장 큰 힘이 된 건 가족이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남편은 늘 ‘당신만의 장점이 있어요. 자신을 믿어요’라고 응원했다.

“시아머니께서 일하는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하셨다는 걸, 돌아가시고 난 후 알았어요. 가족은 정신적 서포터스일 뿐만 아니라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그는 워킹맘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조언한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얼마 전 취직한 큰 애가 ‘엄마의 모습에서 사회생활에 관한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간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

다는 걸 느꼈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당당히 일하는 아내와 엄마를 가족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여성, 스스로 한계 갖지 말아라” = 그는 후배들에게 스스로 한계를 갖지 말라고

당부한다. ‘10개 중 9개를 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나머지 1개를 채우려면 어떡해야 하나’를 고민하라는 얘기다.

“대체적으로 여성 행원들의 업무 처리가 꼼꼼해요. 그런데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는 건 약해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려 노력해야 해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꾸준한 훈련이 필요해요. 의식을 확장하면 일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가 가장 강조하는 건 부단한 자기계발과 폭넓은 인간관계다. 조 상무는 시간이 날 때마다 리더십 관련 서적을 읽고,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현장의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점장들과 끊임없이 소통한다.

“행원일 땐 대리, 팀장일 땐 부장, 지점장일 땐 그 이후를 생각하며 일했어요. 현재 직급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의 입장에서 프로의식을 갖고 업무에 매진했죠. 지금의 자리가 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여성으로서 한계를 갖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고 행동하면 후배들도 얼마든지 유리천장 위로 올라설 수 있어요.”

◇“은행권 신뢰 회복 키워드는 원칙과 고객” =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내부통제를 총괄한다. 최근 해외 금리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재작년 타 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 때도 내부적으로 ‘금리 방향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리버스(금리가 하락할수록 수익이 나는 것)형으로 DLF를 재구성해 고객에게 수익을 안겼다.

그는 은행권 신뢰 회복을 위해선 원칙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객 신뢰는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게 아녜요.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참 안타까워요. 결국은 원칙이에요.”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해요. 진심을 다해 다가가면 고객들도 마음을 헤아려주실 겁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h 휴온스**

빛 나는 하루  
빛 나는 피부

**이너셋 허니부쉬**

THE 더 예뻐지고 19 허니부쉬  
THE 더 아름답고 19 허니부쉬

\*부원료 :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라미이드 함유

이너셋 허니부쉬 ▼ 검색

고객센터 : 1800-4414

# “e스포츠·문화콘텐츠... 라이프스타일 최고 PE 목표”

### 亞 첫 라이프스타일 사모펀드...박정무 ATU파트너스 대표

#### M&A 딜·미디어·엔터·공연기획·재무 전문가 등 다수 포진 'ATU e스포츠 그로스 1호' 펀드 첫 결성...2호 제안 잇따라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전문성과 밸류 창출에 있어서 아시아 최고 PE(사모투자 전문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나해 5월 설립된 아시아 최초 라이프스타일 전문 사모펀드인 'ATU파트너스'는 PE업계에서 떠오르는 신성(新星)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아시아 최초 e스포츠 사모투자 펀드를 결성한 데 이어 올 초에는 국내 최초 문화콘텐츠 프로젝트 펀드 조성까지 앞두고 투자 전문성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투데이는 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ATU파트너스 사무실에서 박정무(사진) 대표를 만났다. 박 대표는 맥킨지 컨설턴트를 거쳐 CJ ENM과 e스포츠 방송 채널 OGN에서 글로벌 사업 팀장을 지낸 인물로, 아시아와 북미 양대 지역에 대한 사업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라이프스타일 전문 사모펀드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미국과 유럽에는 전문성이 특화된 PE가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없다”며 “라이프스타일 영역의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급성장하고 있는데 아직 고도화가 덜 되었다는 점을 착안해 그간의 경험을 통해 밸류업을 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살린 PE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ATU파트너스는 미국 회계사 출신의 M&A 딜 전문가, 10년 이상 국내 및 글로벌 다수의 성공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미디어·엔터 전문가, 공연기획 전문가 등 라이프스타일 산업의 전문성과 재무 전문성을 갖춘 심사역들로 고루 구성돼 있다.

ATU파트너스는 투자의 첫 포문을 'e스포츠'로 선택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말 202억 원 규모의 'ATU e스포츠 그로스 1



호' 펀드를 결성해 LOL(롤) 국내 명문 구단인 디알엑스(DRX)를 인수했고, 글로벌 톱 e스포츠 에이전사인 아지트(Azyt)에 투자를 진행했다.

현재 1호 펀드는 전체 투자약정금액의 70% 이상을 소진한 상태다. 2호펀드는 벌써부터 국내외에서 많은 투자 제안이 들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표는 “올해 3분기 말 정도에 500억 원 이상 규모의 2호 펀드 조성을 할 계획”이라며 “2호는 AI분석 솔루션이나 이를 활용한 코칭 분석 솔루션, e스포츠 데이터 등 디지털 플랫폼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LP도 중국, 미국 등 글로벌 투자자들을 적극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ATU파트너스는 국내 최초로 1분기에 문화콘텐츠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해 공연 기획·제작하는 국내 최정상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200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PE가 페스티벌·공연 기획 제작업체에 유의미한 자본을 갖고 경영 참여형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내 최초”라며 “CJENM 경력 및 한국음악산업백서를 집필한 심사역들의 전문성을 살려 글로벌 음악전문 그룹으로 성장시키고 동시에 20만 명이 모인 공연의 데이터들을 활용시켜 쿼터 밸류업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메린 기자 yerin2837@ 사진 고이관 기자 photoeran@

### 과기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에 김도환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김도환(사진)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교수는 촉각세포를 모사해 웨어러블 전자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피부 기술을 개발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과기부는 “김 교수는 작년 세계기전전사회(CES)에서 이 전자피부를 활용한 '실감형 웨어러블 컨트롤러 시제품'을 선보이기도 한 점이 수상 이유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 연구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에게 주는 상이다. 수상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받는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 화우 강영호·김상만 변호사 등 작년 대만 M&A 어워드 2관왕



법무법인 화우는 대만 통이그룹의 웅진식품 인수건으로 지난해 12월 18일 제9회 대만 M&A 어워드에서 '올해의 대표 M&A 거래'와 '올해의 최고 해외 M&A 거래'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화우 기업자문그룹의 M&A팀은 2019년 3월 대만의 식품·물류 유통 1위 기업인 통이그룹의 자회사 KAI YU (BVI) INVESTMENT를 통해 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한앤코에프앤비홀딩스 소유의 웅진식품 주식 75%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매수인 통이그룹을 자문했다.

강영호(사법연수원 30기·왼쪽 사진) 파트너 변호사와 김상만(연수원 34기·오른쪽) 파트너 변호사는 통이그룹에 주식 매매계약 협상과 체결부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통이그룹은 웅진식품 인수로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김종용 기자 deep@

### 대동공업, 신임 총괄사장에 원유현 경영전략부부장 선임

국내 대표 농기계 기업 대동공업이 8일 원유현(사진) 경영전략부부장을 신임 총괄 사장으로 임명했다.



원 사장은 1970년생으로 조지워싱턴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삼성물산과 KTF를 거쳐 KT 경영전략실 부장,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상무를 역임했다. 지난해 대동공업 전략기획부부장(전무)과 제주대동 대표이사를 맡으며 대동공업의 미래 경영전략 확립에 주력했다. 원 사장은 기존 농기계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미래 농업을 대비한 신사업을 구상할 방침이다.

대동공업은 또 영업 총괄 사장 직책을 신설해 대동금속 이성태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외 인사이동으로 김동균 북미유럽 총괄부부장(이하의영업부부장(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노재억 개발구매부부장(상무)은 공장장(상무)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종순 대동기어 공장장(전무)이 연구소장(상무)에 임명됐다. 하창욱 사장은 대동공업 계열사인 대동기어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中 상하이공장 준중 앞에서 막춤 춘 머스크

### 테슬라 '모델3' 첫 고객 인도 재킷 벗고 40초간 경중경춤 "실적 개선·주가 급등 자축"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상하이에서 흥에 못 이겨 준중 앞에서 서투른 모습으로 춤을 춰 웃음을 자아냈다.

테슬라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중국 진출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머스크가 춤을 춘 이유가 충분하다고 7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이 설명했다. 머스크가 이날 춤을 춘 무대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다. 테슬라는 이날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보급형 전기 세단 '모델3'의 첫 고객 인도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머스크는 무대 위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재킷을 벗어던지고 40초 동안 경중거리면서 춤을 쳤고 청중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자동차 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생산 '모델3' 인도식 행사에서 재킷을 벗어던지고 흥에 겨워 춤을 추고 있다. 상하이/로이터연합뉴스

테슬라 경쟁사들이 신차 판매 둔화,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발에 따른 비용증가 부담,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침울한 상태이지만 테슬라는 실적 개선 등으로 주가가 전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중국 상하이

행사의 흥겨운 분위기가 전해진 듯 테슬라 주가는 이날 전일 대비 3.88% 급등한 469.06달러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6개월간 두 배 뛰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코오롱그룹 신입사원, 사랑나눔으로 사회 '첫발'

코오롱그룹 신입사원들이 8일 경기도 용인 코오롱인재개발센터에서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첫 발걸음을 디뎠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오롱사회봉사단과 국제구호 NGO인 '기아대책'이 함께 신학기 용품 키트를 제작해 저소득 가정 아들에게 기부하는 '드림팩(Dream Pack) 기부천사 캠페인'이다. 코오롱은 2012년부터 매년 모든 신입사원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드림팩을 제작하고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그룹에서의 첫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전통을 9년째 이어가고 있다.

15가지 확용품과 방한용품으로 구성된 드림팩은 지난 1년간 임직원들이 모은 기부금과 회사 매칭 기금을 더한 재원으로 만들어진다. 이날 만들어진 드림팩은 전국 41개 지역아동센터 1200여 명의 아동들에게 전달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코오롱그룹 신입사원들이 서창희(오른쪽 다섯 번째) 코오롱사회봉사단 총단장, 손봉호(세 번째) 기아대책 이사장과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위한 신학기 용품 키트 '드림팩'을 제작하고 있다.

### 인사

- ◆기획재정부 ◇전보(국장급) △관세정책관 주태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이사관 전보 △기획조정관 인니 수도이전 협력팀장 최형욱 △도시계획국 도시정책과장 홍순민 ◇지위 승진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시설건축과장 최병성
- ◆금융보안원 ◇부서장 △경영기획부

- 박진석 △침해대응부 임형욱 △보안연구부 권기남 △마이데이터추진반 김제광 ◇팀장 △금융보안교육센터 이신일 △융합보안부 고규만
- ◆하이드릭엔스트러글스코리아 △부사장·파트너 김기욱 △상무 최은영
- ◆한겨레신문 〈한겨레〉 ◇팀장(출판국) △한겨레21부 경제팀장 서보미 ◇데스크(영상미디어국 뉴스에디터석) △라이브팀 데스크 김진철

### 부음

- ▲박상서 씨 별세, 배용준(신한금융투자 신한PWM도곡센터장) 씨 장인상 = 7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9일 오후 2시, 02-2258-5940
- ▲강인석 씨 별세, 정하원(정담서울이비인후과 원장·전 서울대 의대 교수)·봉원(새벽교회 장로) 씨 모친상 = 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9일 오전

- 11시 30분, 02-3410-6920
- ▲전수자 씨 별세, 한필상(농구전문 월간지 점프볼 취재팀장) 씨 모친상 = 8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서울성모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10일 오전 10시, 02-2258-5940
- ▲강옥구 씨 별세, 김상현(우진메트로 기술실장)·종현(연합뉴스 경제담당 논설위원)·대현(금강레미콘 차장) 씨 모친상 = 8일, 충북 제천 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9시, 043-644-4422

자본시장 속으로



김호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장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의사결정 체계상 회사보다는 기관투자자가 우위에 있다. 이러한 기관투자자에게 자금 운용을 위탁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므로 업체 선정과 운용 방식 등의 결정에 있어 우위다. 국민연금은 정부 산하 기관으로 국정감사 등 국회의 견제를 받으므로, 국회가 우위에 선다.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으므로 국민이 최고 우위가 된다.

지배구조 분야 교수, 관련 업계 동료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20대 젊은이와 같은 순수한 꿈과 열정을 접할 때가 많다.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여길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현실 대비 법 제도의 오해와 공백 등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온당한 인식과 정서는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개선된 현실을 만들어 낼 거란 믿음이 있어서다.

최근 몇 년간 동료들끼리 안타까워했던 '개념의 혼동' 중 하나는 '연금사회주의'(Pension Fund Socialism)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나 수탁자로서 책임활동에 기가 나오면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단어다. 정부 산하의 국민연금을 동원해 기업 활동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국가가 경제를 직접 담당하는 사회주의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다.

만일 1976년 연금사회주의를 주창하기 시작한 피터 드러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분명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그는

미국 국민이 낸 연금의 상당 부분이 기업에 투자됐으므로, 이제 '노동자도 자본가'요, 근로자를 위한, 연금에 의한 사회주의'라는 의미로 역설했다. 나아가 이는 첨단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본'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이므로, '일찍이 유례없던 혁명'(The Unseen Revolution)이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다수 언론에서 연금사회주의는 '정부의 불합리한 개입'이란 개념으로 여전히 왜곡해 사용하고 있다.

개념상 혼동은 전체 메커니즘의 파악과 현실 확인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 원래 뜻을 인과 사슬로 좀 더 확장해 보자. 근로자는 회사가 고용하므로 개념상 회사가 근로자보다 우위에 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의사결정 체계상 회사보다는 기관투자자가 우위에 있다. 이러한 기관투자자에게 자금 운용을 위탁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므로 업체 선정과 운용 방식 등의 결정에 있어 우위다. 국민연금은 정부 산하 기관으로 국정감사 등 국회의 견제를 받으므로, 국회가 우위에 선다.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으므로 국민이 최고 우위가 된다.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현실을 보자. 이상하게도 연금을 내는 국민, 근로자들이 전혀 최고 우위에 있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 4월 말 기준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약 2200만 명,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2019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약 712조 원으로 한국 '실질 GDP의 40%'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중 39%가 주식, 49%가 채권이므로, 국민은 약 88%의 자금을 제공해 준 자본가로서 책임활동을 할 수 있다. 이제 연금사회주의 의미와 필요성, 그 중요성이 뚜렷하게 다가온다. 공정한 기준에 따라 어떻게 잘 활용할지가 남아 있을 뿐이다.

'제도상의 공백'에서도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일례로, 한국의 기업 승계와 증여의 새로운 공식으로 정착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 이상'(비금융업종) 기업집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자산 5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은 부당지원금지 규제 적용은 받지 않지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상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

법 제도가 '현실보다 후행'할 수밖에 없

다는 것 역시 전문가 동료들 사이에서 주요한 논의거리다. 공정거래법 제23조가 대표적이다. 기존 조항에서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만 처벌하던 것을, S사 최대주주의 사익편취 사건이 발생하자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가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H사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가 발생한 후에는 기존의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서 가격 외에 '상당한 규모의 거래'까지 그 규율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회사는 2001년 자본금 125억 원에서 현재 시가총액 5조 원대의 회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자본시장 관련 법제는 그 성격상 사전에 여러 가지 규율을 강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 자율적 견제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 법 제도나 정부의 규제 이외에 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이유이다.

이론적으로 자유주의는 불간섭을 원한다. 반면, 공화주의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면 합리적 견제를 용인한다. 한국의 영문 명칭은 Republic of Korea로 공화국이다. 이론과 현실의 합리적 균형이 필요하다.

CEO 칼럼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부동산 산업은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는 기술 곡선을 쫓아가고 있다. 물론 부동산 산업은 기술이 효과 대비 과장됐다고 여전히 저평가하기도 한다. 그만큼 부동산 분야는 이머징 기술을 비교적 늦게 채택하는 슬로 어답터(slow adopter)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기술 세상으로 용감하게 뛰쳐나가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도시 부동산 연구단체인 U니는 2020년 부동산과 기술의 접목 흐름을 발표했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우리 사회는 주택 모듈러 기술이 가장 먼저 실현되길 바라고 있다. 세계 모든 대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적절한 가격의 주택 공급이다. 현존하는 위험이자 사회 갈등의 원인이다. 그 해결책을 모듈러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 더 싸고, 빠르고, 나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가치를 제공하는 기술 솔루션이 있다.

주택 모듈러·공간거래...부동산 신기술이 온다

스마트 빌딩 시스템은 에너지와 물 사용의 최적화, 온도 통제, 공간 감지, 자동 조명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준다. 공동주택의 카드키, 코드,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래치(Latch)사는 아파트 이해관계자(개발, 운영, 입주자) 간의 마찰을 줄이고 래빗(Rabbit)사는 건설비 대출과정을 단순화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콘 에디슨(Con Edison)사는 정전사태를 30초 전에 경고해줘 데이터 피드백과 내부 시스템을 방어하는 시간을 벌어주며 난텀(Nantum)사는 여러 빌딩의 각종 데이터를 모아 관리비용을 절약해주는 플랫폼이다.

건물 입주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기술도 있다. 여러 스마트홈 기술이 현실화되면서 집 안의 기구를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입주자와 공유하고, 다양한 경험과 에메니티를 제공하는 앱도 있다.

현실성이 높은 부동산 미래 기술을 보자. 이미 빌딩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능

력은 보편화됐다. 다음 단계는 이를 활용한 빌딩 시스템 최적화다. 탄소 배출 목표치가 엄격해지면서 더 작은 데이터까지 필요해진다. 부동산 거래 절차가 디지털로 간소화되고 있다. 감정평가와 공중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보험, 은행, 구매자, 판매자, 중개인, 브로커 등 이해관계자 간의 거래가 단순화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듈러, 경량 철강과 콘크리트 같은 신소재를 사용하면서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신기술의 규모 경제 달성과 지자체별 규제 차이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머신러닝은 투자와 자산관리상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 부동산에 가상현실 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고객이 직접 아파트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상으로 색깔, 타일, 부엌 배치 등을 고해상 3D로 주문해 볼 수 있다. 여러 빌딩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보는 기술도 가시화돼 한 번에 많은 스크린을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

공간거래(space arbitrage) 기술도 있다. 기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자산 가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에어비앤비(Airbnb)는 개인의 남는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펍업 호텔인 와이호텔(WhyHotel)은 비어 있는 고급 임대아파트 방을 빌려 펍업 호텔로 운영, 상호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구글, 아마존, MS 등 대형 기술회사들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사업, 빌딩 기술, 스마트 도시사업을 하고 많은 부동산 회사에 기술을 팔거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거대한 신기술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 산업은 기술 채택에서 뒤처져 있었다. 그동안 AI 방식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부동산 산업에서 빅데이터를 포함한 신기술 솔루션이 갖는 잠재력은 크다. 부동산 산업이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친구가 돼야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리처드 닉슨 명언  
"인간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미국 제37대 대통령. 아시아 각국은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미국은 다만 동맹국이나 중요한 관계가 있는 국가들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선언했다.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체포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13-1994.

☆ 고사성어 / 자포자기(自暴自棄)  
자신을 스스로 해치고 버린다는 뜻. 몸가짐이나 행동이 되는 대로 취한다는 말이다. 출전은 맹자(孟子) 이우상편(離婁上篇). "자포(自暴)하는 자와는 더불어 말할 수 없다. 자기(自棄)하는 자와는 더불어 행동할 수 없다. 예의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자기라 한다. 나는 인의(仁義)의 경지에 다다라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라고 이른다[自暴者不可與有言也 自棄者不可與有爲也 言非禮義 爲之自暴也 吾身不能居仁由義 爲之自棄也]."

☆ 시사상식 / 의존효과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자신의 자주적 욕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광고, 선전 등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현상.

☆ 유머 / 현금 용도  
가짜 목사, 신부, 스님이 현금 쓰는 법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신부는 "땅에다 원을 그려놓고 돈을 하늘로 확 뿌려서 원 안에 떨어진 것만 내가 쓰고, 밖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씁니다"라고 하자 스님은 "원 안의 돈은 부처님 일에 쓰고, 밖의 돈은 내가 다 갖죠"라고 했다.  
목사의 용도. "돈을 하늘로 확 뿌려 '주님! 갖고 싶은 만큼 가지십시오' 하고 땅에 떨어진 돈은 내가 다 가집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최근 경제 상황을 이야기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종종 인용하는 표현 중 하나가 자실현적 위기다. 과도한 위기의식이 실물 경기를 더 위축시켜 실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언론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다. 모두가 합심해 경제심리를 살려야 할 상황에 하루가 멀다고 디스플레이션 우려,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 등 위기론을 쏟아내니 불편할 만도 하다.

하지만 위기의식이 과도하다고 해도 위기는 위기다. 대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 감소, 소비 둔화가 가팔라지고 있고, 노동·생산은 기술·산업 변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에 더해 미·이란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국가 간 갈등은 지역과 형태를 불문하고 악재다. 더욱이 이란 등 중동엔 우리 기업들도 다수 진출해 있다.

경제 상황이 변화할 때 정부만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다. 기업 등 경제주체도 준비가 필요하다. 경제심리 위축을 막겠다고 위기를 감추면 경제주체들은 위기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사업을 정리·변경할 시기를 놓치고, 대체 거래선을 확

기자수첩

김지영 정치경제부/jye@



위기의식 과도해도, 위기는 위기다

보할 시기를 놓친다. 기업은 신호를 잘못 읽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간 폐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에 비추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으나, 엄중한 경계로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해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직시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게 자기실현적 위기로 이어질 것 같다면, 위기의식보다 더 큰 희망을 보이면 되지 않겠는가. 철저한 대비와 대응 방안 마련·집행을 통해서 말이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집값 전망 너무 믿지 마라

“올해 집값은 어떻게 될 것 같나?”, “강남 아파트값은 정말 떨어질까?” 요즘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받게 되는 질문이다. 조금 가까운 사이라면 한 가지 질문이 더해진다.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의석수를 가장 많이 거머쥘까?”, “보수야권이 과연 통합신당을 만들 수 있을까?”

총선 전망은 호사자들의 영역이고, 선거 판도와 결과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정치 얘기는 그렇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올해 집값 전망이다.

집값은 오를까, 내릴까. 새해를 맞아 집값 전망을 묻는 것이지만, 정작 질문의 밑바닥에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배어 있다. 아파트 매매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데다 연말과 새해를 맞아 암울한 집값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사실 연초 서울 주택시장 상황은 그리 낙관적 않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고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름 새 호가가 1억~2억 원이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다. ‘거래 절벽’이 숨 쉴 틈도 없이 급작스럽게 진행되면서 매매 시세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얼마 전까지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값이 다락같이 오를 것을 떠올리던 드라마틱한 반전이다.

세금·대출·청약 규제를 망라한 12·16 부동산 대책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다. 고가주택(9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 데스크칼럼

### 조철현

부국장 겸 부동산부장



종합부동산세 및 공시가격 인상, 임대사업등록 혜택 축소, 주택 거래 내역 조사 등 고강도 규제로 주택 매수 심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서울 주택시장 전망은 ‘젯빛’이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즘 았다튀 새해 서울 집값이 적어도 상반기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이 꼽는 주택시장 침체 핵심 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돈줄 봉쇄(대출 규제)와 세금(보유세+양도세) 폭탄이다. 이른바 ‘2대 악재’로 하나같이 집값을 옥죄던 ‘대형’ 규제들이다.

이처럼 주택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다. 무시 못할 악재가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젯빛 전망이 자칫 ‘없는 불안’까지 만들어내 시장을 짓누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고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최근 강남 아파트값 약세도 그동안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매수 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웅단 폭격으로 시장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숨죽일 수도 있다.

하지만 넘쳐나는 시중 유동자금과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가능성, 누적된 공급 부족 심리,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불안한 전세시장 등으로 집값 약세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세상 모든 시장이 그렇듯 부동산 시장도 복잡다단하다. 집값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얽히고설켜 갈피를 잡기 힘들다. 그 변수들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예측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내놓은 집값 전망은 대부분 빗나갔다. 중장기 전망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해의 집값 전망조차 완전히 거꾸로 하기 일쑤였다.

이런 까닭에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망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조언한다. 시장 향방을 제대로 읽기 위해선 선부른 낙관론도 피해야 하지만 근거 없는 비관론도 경계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분석과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다. 한쪽에 쏠려 극단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앞에 닥친 시장의 현상만 보기보다는 시장을 둘러싼 여러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장기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부동산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연말이나 연초만 되면 내놓는 집값 전망을 너무 믿지 말자.

choch21@

## 사설

### 외국인직접투자 급감, 투자 매력 없는 나라

작년 외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FDI)가 2018년의 269억 달러에 비해 13.3% 줄어든 233억3000만 달러(신고 기준)로 집계됐다.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감소했다. 실제 투자가 집행된 도착 기준으로는 127억8000만 달러에 그쳐 감소폭이 26%에 이른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FDI 모두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를 앞두고 2018년 FDI가 이례적으로 급증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투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사라지고 있음을 이유로 들고 있다. 온갖 규제의 장벽에 둘러싸인 국내의 척박한 기업환경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신고액 159억1000만 달러로 20.5%, 도착액 61억1000만 달러로 49.3%나 감소한 것이 말해주고 있다. 대신 기업 인수합병(M&A) 투자가 신고액 74억2000만 달러, 도착액 66억7000만 달러로 각각 7.6%, 27.8% 늘었다.

FDI의 걸림돌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외국 기업들은 노무 환경과 규제, 세제 등의 문제를 주로 꼽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 등 친(親)노동 정책과 노동시장 경직성, 화학물질 관련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부담이 크게 늘고,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산업 분야에서 잇따르고 있는 기득권 집단과의 갈등도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여 중장기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ODI)는 급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집계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ODI 금액은 444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6%나 늘었다. 연간으로는 5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의 ODI도 497억8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FDI의 2배를 훨씬 웃돈다. 설비투자 감소세에서 알 수 있듯, 우리 기업들까지 국내 투자는 줄이고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대거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기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법 인세를 인하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것과 거꾸로다.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줄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한다. 우리 기업 환경의 현주소다. 기업의 국내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일자리를 만들 수 없고 소득과 소비도 줄어든다. 경제가 후퇴하는 악순환이다. 경제를 살리고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말고 달리 길이 없다. 규제의 혁파와 노동 시장 개혁이 그 핵심이다.

## 배준호의 세계는 왜?



국제경제부 차장

### 출구 안 보이는 美·이란 군사충돌

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지금처럼 서로 위험한 도박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태가 터져 ‘피의 전쟁’이 시작되면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다.

먼저 미국을 살펴보자. 만일 미국이 전면적으로 이란을 타격하고자 하면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수주 만에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쟁은 미국이 새로운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이런 상황을 이미 목격했다. 또 시리아 사태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란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트럼프가 새해 들어 이란에 강경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유권자들은 전쟁과 테러 등 위기에 빠졌을 당시 현직 대통령에 표를 몰아줬다. 조지 W. 부시는 9·11 테러를 막지 못했지만 재선에 성공했다. 게다가 외국과의 긴장 국면은 미국 내 탄핵 정국 돌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알팍한 정치적 이점을 노리고 트럼프가 지금과 같은 전략을 취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 트럼프는 그동안 중동 혼란에 발이 묶였던

전문가들을 비판하면서 미군 철수를 추진했는데 스스로 이에 역행하는 행보를 취한 것이다. 이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아프간 전쟁 등으로 염증을 느끼는 미국 유권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뉴욕증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살아나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도 후퇴하는 등 세계 경제가 2020년을 희망차게 시작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트럼프가 제 발등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란 지도자들도 지금 당장은 ‘구국의 영웅’ 솔레이마니가 죽어서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 1953년 군사 쿠데타 조정과 팔레비 왕조 지원 등으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란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량이 안 되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국민을 굶어 죽게 할 셈인가.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국민은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일이다. 물론 미국에 절대 굴복하기는 싫겠지만 어설피게, 되지도 않는 전쟁을 한다고 설치느니 과감하게 대화와 협상에 나서는 것이 상책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baejh94@



### 조산의 원인 ‘자궁경부무력증’

자궁경부무력증은 임신 중기에 자궁 수축이나 통증 없이 자궁경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태아를 지탱하는 자궁경부가 열리게 되면 질 내로 양막이 빠져나오게 돼 유산이나 조산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자궁경부무력증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궁경부의 선천적인 이상 또는 과거의 분만 및 유산 시술로 인한 자궁경부의 손상, 자궁경부 원추절제술 등 수술과 관련된 외상 등의 후천적 원인이 발생할 수 있다. 자궁경부무력증은 통증이 없이 자궁경부가 저절로 개대되므로 전형적인 임신 증상이 없어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 정기 진찰 중 시행한 질초음파, 질경검사에서 자궁경부가 짧아져 있거나 열려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질분비물의 증가, 질출혈, 요통, 골반통, 배변감, 생리통과 유사한 통증 등이 동반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증상은 정상 임신으로 인한 생리적인 증상과 유사해 자궁경부무력증을 조기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임신 중기에 자궁경부무력증이 진단된

경우 질 내로 내려온 양막을 자궁 내로 밀어 넣어주고 자궁경부를 실로 묶어주는 응급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 또는 조기 수축이 있는 상태에서 응급 수술을 시행할 경우 되레 자궁 수축을 유발해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술에 부적합한 임신부에게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을 시행할 경우 결국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자궁경부가 찢어질 수 있고, 자궁경부에 상처가 남아 다음 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므로 임신 24주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을 시행해야 한다.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조기 진통이 발생하거나 유산 또는 조산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과거임신에서 자궁경부무력증이 있었던 경우 다음 임신에서 자궁경부무력증의 재발 위험이 높으므로 예방적으로 임신 12~14주 사이에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 성지희 강북삼성병원 산부인과 교수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http://www.etoday.co.kr)

# 우리에게 혁신의 자연스럽다

#친환경 자동차 소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자연을 생각할 순 없을까?

**SK가 친환경 소재로 혁신합니다**

더 가볍고 오래가는 초경량 소재로  
자동차의 무게는 덜어주고,  
배출가스를 줄여줍니다

우리의 기술이 자연이 바라던 혁신이 되도록

**SK** 이노베이션